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2002 학년도

제주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이진석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한태국

제주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8월 일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한태국

한태국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권순용 (



부심위원 이진석



부심위원 고승한



2002년 8월 일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요 약

제주지역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

- 고등학교 교사·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

한 태 국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향토사 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토사 학습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 근무하는 사회과 선생님들과 대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교사와 학생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향토사 학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2) 향토사 학습은 역사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3) 향토사를 고입시험에 출제하는 방안과 대학에 향토사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5) 향토사에 관한 교사들의 연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향토사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는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7) 지역마다 고유의 향토사를 수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의 편찬을 위해서는 현행 전국 공통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교과서로 바꾸어야 한다.

ABSTRACT

The Rethinking of Local History Education Among Teachers and Students of High School in Jeju: Toward Alternative Solutions

Han, Tae-Guk
So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mna University

It is essential to preserve Korean national identity in the globalization era, thus making the youth to recognize Korean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Due to the increasingly importance of historical learning and education in locality,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present situation of local history learning in Jeju region and to suggest its eligible resolution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ll students in Dae-Jeong high school, as well as all teachers working with social studies division of 28 high schools in Jeju. Related to the data collec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the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he key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historical learning in locality should be reinforced in the school; 2) its inclusion of local history learning activities in historical studies, including all studies; 3) in order to revitalize the local history learning in future, some policy-oriented solutions (i.e., newly opening of local history department in college, local history's content inclusion of high school entrance exam, re-education and participation extension for teachers, development and use of diverse multi-media such as Internet materials, CD, and VCR in the increasingly emerging information societies as a whole); 4) the historical education in locality needs to be reorganized into an individual curriculum; 5) the present history textbooks compil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changed into various ones much more eligible to local history and tradition in specific societies.

The future study will explore somewhat historical discussion of local history learning activities and programs coupled with a variety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of Jeju. Furthermore, the qualitative data (i.e., participant observation, in-dept interview, content analysis) for a much more understanding on local history education should be added.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제한점	5
II. 이론적 배경	6
1. 향토사의 의미	6
2. 향토사 학습의 교육적 기능	9
3. 향토사 학습의 단계별 특징	12
4.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8
III. 연구의 방법	22
1. 향토사 자료의 분류와 선정 기준	22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의 처리	25
IV. 제주 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 분석	26
1. 학생들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분석	26
2. 교사들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분석	37
3. 학생과 교사간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교차 분석	52
V. 향토사 학습의 개선 방안과 지도 방법	57
1. 향토사 학습의 개선 방안	57
2. 향토사 자료의 지도 방법	60
VI.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 II-1]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역사의식의 단계와 그 특징	15
[표 II-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16
[표 IV-1](학생) 향토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26
[표 IV-2](학생)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26
[표 IV-3](학생)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27
[표 IV-4](학생)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27
[표 IV-5](학생)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	28
[표 IV-6](학생) 겸인정 교과서로의 개편 문제	29
[표 IV-7](학생) 향토사 학습의 강조점	30
[표 IV-8](학생)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	30
[표 IV-9](학생) 향토사 자료의 제작 유형	31
[표 IV-10](학생)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	32
[표 IV-11](학생) 향토사 학습자료의 유형	32
[표 IV-12](학생)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33
[표 IV-13](학생)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학습 교과	34
[표 IV-14](학생) 향토사 답사활동의 유형	34
[표 IV-15](학생) 고입 시험에 반영 여부	35
[표 IV-16](학생) 독립된 교육과정으로의 편성 여부	35
[표 IV-17](학생) 대학에 향토사학과 설치 여부	36
[표 IV-18](학생) 향토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감정	36
[표 IV-19](교사) 향토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37
[표 IV-20](교사)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38
[표 IV-21](교사)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38

[표IV-22](교사)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39
[표IV-23](교사)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시기	40
[표IV-24] (교사) 검인정 교과서로의 개편 문제	41
[표IV-25](교사) 향토사 학습에서의 강조점	42
[표IV-26](교사)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	43
[표IV-27](교사) 향토사 자료의 제작 유형	44
[표IV-28](교사)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	44
[표IV-29](교사) 향토사 학습자료의 종류	45
[표IV-30](교사) 향토사 지도 시간	46
[표IV-31](교사) 향토사 지도 교과	47
[표IV-32](교사) 향토사 답사활동 유형	47
[표IV-33](교사) 고입 시험에 반영 여부	48
[표IV-34](교사) 독립된 교육과정으로의 편성 여부	49
[표IV-35](교사) 대학에 향토사학과 설치 여부	49
[표IV-36](교사) 향토사 자료의 활용 정도	50
[표IV-37](교사) 교육청에서의 자료 제작 보급 여부	50
[표IV-38](교사) 향토사에 대한 일반연수 회망 여부	51
[표IV-39](학생-교사) 향토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52
[표IV-40](학생-교사)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53
[표IV-41](학생-교사)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53
[표IV-42](학생-교사)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54
[표IV-43](학생-교사) 향토사 학습자료의 제작 유형	55
[표IV-44](학생-교사) 향토사 학습자료의 종류	55
[표IV-45](학생-교사) 고입 시험에 반영 여부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세계는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간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국가 간의 장벽이 점점 사라져 가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지구촌의 새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탈바꿈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처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세계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정체성¹⁾(正體性, identity)을 계속 유지하는 국가는 발전하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퇴보하거나 심하면 존재 조차 말살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화의 조류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해 식민지 생활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조그마한 반도에 위치하여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가 상호 충돌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고려시대 여·원 연합군이 일본정벌을 떠난 사실이나,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을 침공한 것은 좋은 예이다.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겪게 된 것도 이러한 세계화의 조류에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복 후 민족의 총체적 노력으로 국력이 급속히 신장되었고, 1988년 올림픽 개최, 1996년 OECD 가입,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 창조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지구촌 세계의 형성이라는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임을 의미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요, 우리 민족이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계에 통화된다는

1)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나아가 우리의 것을 세계화해야 한다. 요즘의 학생들은 외국의 급변하는 문화와 유행을 빠짐없이 따르면서 외국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서양의 문화가 발전인 듯 착각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다른 나라의 것을 ‘들여오는’ 일보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석굴암과 팔만대장경 및 종묘 등이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은 좋은 예이다.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향토사 학습이 필요하다.

향토사 학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고장에 흘어져 있는 많은 유물과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고장에 대한 궁지와 애향심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토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고,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은 물론 자기주도적인 역사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역사에 대한 홍미와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한편 교사들에게는, 향토 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답사활동을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역사적 사고력이 함양되며, 올바른 교재관과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지역사회와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교사들의 역할 신장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학에 있어서 향토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외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진다. 영국²⁾에서는 1948년에 레세스터대학(University of Leicester)에 향토사학과가 설치되어 오늘날까지 영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향토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레세스터대학의 향토사학과는 영국

2) 강봉룡. 지방사 연구와 역사교육. 윤세철교수 정년기념역사학논총2. 2001. p 157

전체의 주를 대상으로 향토사를 연구한다. 이 점은 다른 대학들이 소재지 지역의 향토사만을 연구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이 학과는 처음에는 학생을 뽑지 않은 가운데 연구만을 위한 학과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 뒤에 1965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석사과정을 설치하였고, 이후 이 학과는 석·박사과정만을 둔 대학원 학과로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프랑스³⁾에서는 향토사 연구가 많은 진전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아날학파의 성장일 것이다. 1929년 1월 중세사 연구가인 마크 블로흐(Marc Bloch)와 근대사 연구가인 루시엥 페브르(Lucien Febvre)에 의해 ‘경제, 사회사 연보’(Annales d’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의 창간호가 나왔다. 이것이 아날학파(ecole des Annales)의 출발이었다. 아날학파의 태동은 역사학과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간의 지적, 인식론적, 제도적 벽을 무너뜨렸다. 프랑스에서 향토사 연구가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보여지며, 프랑스 향토사의 큰 특징은 지리학,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등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건사, 정치사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기보다는 신화나 전설, 축제, 가족, 혼인, 성(性), 의복, 음식 등과 같이 기존의 역사학에서 별로 다루지 않던 주제들을 중시한다.

일본의 경우⁴⁾는 오늘날 縣 수준에서부터 그 하위 市町村 단위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에서 ‘史’ 혹은 ‘誌’류의 간행은 놀랄 정도로 활발하다. 예를 들어 郡誌의 경우 1906~1909년 사이에 전국에서 19권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 에도시대(1603~1867)에 편찬된 地誌의 수도 130을 헤아리며, 명치시대 이후(1868~1939) 편찬된 府縣史를 가지고 있는 곳도 20곳 104권에 이르고 있다. 이 당시의 향토에 관한 ‘史’ 혹은 ‘誌’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의 대부분은 각각의 향토에서 과거 이름을 떨친 인물이 태어났다고 하거나, 혹은 유명한 인물이 자기들의 향토를 방문한

3) 신인철. 프랑스의 향토사 연구. 향토사연구 제6집. 1994. p 51~52

4) 이승진. 日本의 鄉土研究 小史. 향토사연구 제6집. 1994. p 75~79

적이 있다거나 하는 류의 사실을 찾아 정리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향토사 연구의 출발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에 이르러 중앙중심, 왕권중심 역사서술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향촌사회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부터였다. 여기에 1980년대 이르러 향토사 연구자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해준, 송춘영 등에 이르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향토사 연구가 이루어진다. 각 지방대학의 연구소와 박물관 등도 향토사연구에 큰 뜻을 하고 있다.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등이 돌보인다.

1998년 6월에는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가 중심이 되어 ‘역사문화학회’를 결성하여 지방의 역사문화를 연구하는 전국학회로 발전해 갈 것을 천명하면서 향토사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향토사에 대한 연구가 지방의 역사·문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고고학·역사학·문화인류학·민속학 등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역사문화학회’는 이를 충실히 실천에 옮겨가고 있으며, 최근 한국사학과 문화인류학, 그리고 사회학 분야 등에서도 지방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어서 향토사 연구의 전망은 그만큼 밝아지고 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과정에 향토사 학습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꾸준히 시행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명시한 이래, 5차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고, 6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현실에 맞게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여 초보적이나마 실현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등 교육과정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향토사 학습 실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의 생각으로는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출판함으로써 다양한 교재의 출판이 불가능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향토사 학습자료의 부족, 역사수업 시간의 부족, 교사와 학생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기되는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과 교육적 기능을 밝히고, 제주 지역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인식도를 교사·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향토사 학습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그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실태 파악과 새로운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지 조사 대상은 2002학년도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과 선생님 87명과 대정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166명으로 제한하였다.

둘째, 문화재 인식도에 대한 조사는 탐라국 개국 설화와 관계 있는 삼성혈과 제주인의 대몽항쟁의 상징인 항파두리 유적 등 제주도에 있는 문화 유적 중에서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는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전도적으로 골고루 선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1회의 설문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장기적인 실태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넷째, 연구의 대상을 제주도 지역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향토사의 의미

향토⁵⁾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고장을 의미하며 인간이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인격 형성과 정신적·신체적 발달의 모체가 된 지역 사회를 말한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향토를 말하는 것이지만 보다 깊은 사회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향토를 사회적 개념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 정신을 가지고 서로의 흥미를 만족시키면서 생활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 조직,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 인문사회인 동시에 공동 생활 감정과 상호 의존적 유대를 지닌 사회단위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향토란 지역사회 내에 있는 하나의 작은 단위의 지연사회라고 할 수 있다.⁶⁾

향토사는 바로 이러한 ‘향토’에 축적되어 온 역사적 경험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향토사를 향토사학자들이 애향심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자기 고향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향토에 대한 애정은 그것이 무조건적일 때가 문제이지 냉철한 연구방법론에 입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될 수도 있다.

‘향토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된 개념이 ‘지방사’인데, 이는 흔히 전문 역사가에 의한 연구물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5) ‘향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① 鄉土 :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땅.

地方 : 어떤 방면의 땅, 서울 이외의 지역.

地域 :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② 鄉土 : 시골, 고향 땅.

地方 : 어느 한 방면의 땅, 서울 밖의 지역, 시골

地域 : 지표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 부분. (이희승.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6)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294~5

는 ‘지방사’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방’이란 개념에는 ‘중앙’에 종속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독자적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방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제시된 개념이 ‘지역사’이다. 지역사란 소박한 의미의 향토애에서 출발하거나, 지방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전국적인 시야에 두고 어떤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여 다른 지역과의 공통성이나 특수성을 규명하고 이를 비교, 종합하여 연구하는 특정 지역의 지리적 위치에 주안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용어는 보통 영어로 Local History의 번역어로 채택되기도 한다. 국가사에 대응되는 의미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Local History를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관행적으로 ‘향토사’라고 칭해오고 있다.⁷⁾

이처럼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학습에서 사용될 때는 ‘향토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⁸⁾ 왜냐하면 역사학습에서 향토사 학습이라고 지칭할 때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토사’, ‘지방사’, ‘지역사’를 ‘향토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향토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호스킨스

7) 김양규. 충주 지역의 향토사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1998. p 3

8) ①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 하에서는 지방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은 ‘지방’이란 용어보다는 ‘향토’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친근감을 주고, 지역사회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적절하다.(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6 p 5~7)

② ‘지역’ 이란 ‘지방’과는 달리 ‘중앙’에 종속된다는 가치 개념이 없는 중립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라는 용어가 적절하고 본다. (강봉룡. 지방사 연구와 역사교육. 윤세철교수정년기념역사학논총2. p159)

9)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p 4

(W.G. Hoskins), 핀버그(H.P.R. Finberg), 토오니(R.H. Tawney) 등의 레세스터(Leicester)학파에 의하여 제창되었으며, 그 후, 많은 학자들 간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역사학자들은 고고학적 발굴에 관한 관심과 지방의 건축 유물 등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향토사가 단지 국가사의 보조학문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이에 상응하는 교육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역사학습에서는 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의 강조와 더불어 향토사도 한 몫을 하게 되었다. 특히 페스탈로치, 프로벨, 듀이 등에 의하여 주장된 확실한 증거에 의한 교육이론은 학생들이 직접으로 접할 수 있는 사물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게 되어 향토사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었다.¹⁰⁾

이러한 향토사는 그 성격상 역사적 성격과 향토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성격이란 향토사는 국가사, 또는 민족사의 한 부분으로서 이를 보충, 검증하고 설명하는 부차적인 가치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향토사와 지역 사회의 역사보다는 그 이상의 영역을 다루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입장에서 본다면 역사 학습에 있어서도 향토사 학습은 민족사의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의 한 사례로서의 가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향토적 성격이란 향토사를 국가사(國家史)와, 국가사는 세계사와 대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¹¹⁾ 만약에 향토사를 국가사의 일부나 보조학문으로 본다면 국가사도 세계사의 일부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와 같이 향토사가 갖는 양면성을 살펴 볼 때 역사학습에 있어서의 향토사 학습은 그 어느 일면만 추구하여서는 안되며 양자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역사적인 성격만을 강조하면 향토사 연구가들의 개인적인 성과를 등한시 할 우려가 있으며, 향토사적인 측면

10) 이원순, 윤세철, 허승일.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3. P 291~292

11)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만을 강조하면 배타적인 지역감정을 조장, 자극하여 객관적, 거시적인 역사인식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¹²⁾ 향토사가 그 지방의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그 지방 역사의 종합적인 소산이라고 한다면, 향토사 학습은 종교·의식주·교통·통신·기후·산업·풍속·문화재·인물·사회규범·역사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향토사는 이런 경우에만이 그 지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향토사 학습의 교육적 기능

향토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이다. 향토에는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살아 숨쉬고, 그 역사적 정취와 향기가 남아 있어 정감이 가는 곳이다. 동시에 향토는,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학습이 가능한 곳이다.

향토사 학습의 가지는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이원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¹³⁾

첫째, 향토사는 향토 사회인의 문제 해결의 역사이다. 향토사는 향토의 역사 발전 속에서 나타난 그때 그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온 향토인들의 고귀한 역사적 생명력과 그 흔적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고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 온 조상들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향토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향토사는 공동 생활 감정을 유대로 하는 자연사회이기 때문에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향토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 향토와 유관한 사실은 학습자의 조상들이 직·간접적으로

12) 金貞熹, 國史學習을 爲한 鄉土資料活用方案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3. p 5.

13) 이원순, 사회과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p 115~116

이룩해 놓은 산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조상의 피와 땀의 결정체에 대해서 더욱 애착심을 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친밀감을 갖게 될 것이다.

세째, 향토사는 학습자와 가장 가까운 신변사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현실 사회의 학습의 장이며, 많은 학습 자료를 가진 신변사회의 역사이다. 역사적으로 변천 발전해 온 향토의 연혁으로부터 고문서·서적류·유물·유적 등의 문화재·교통·통신·건축물·종교·의식·생활용구·인구변동·산업경제·인물·제도·전설(설화)·지명유래·행사·시장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승혜는 향토사 학습의 교육적 기능은 ‘향토사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¹⁴⁾

첫째, 향토사는 향토 사회인의 문제해결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향토의 고문서, 유물, 유적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향토의 역사 를 학습하면서 그 속에서 향토사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추상적인 이해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서 학생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그들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직접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탐구와 발견의 태도를 발달시키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네째, 학교와 사회의 경계를 없애도록 도움을 주어 학생 자신의 지역과 학교 밖의 역사적 환경을 조사하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넓은 주제와 피상적인 학습에 비해서 실제 사람과 실제 상황을 깊이 있고 상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향토사 학습에서 학생은 주위의 유물·유적을 접촉하고 방문하는 등 향토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를 통하여 역

14)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0. p 13~15

사의 증거가 그들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대해 아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전달된 진실(truth)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맹목성의 위험을 알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일반적인 개념적 사항이 자신이 사는 향토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한편, 스탭핸스(W. B. Stephens)는 향토사 학습이 갖는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⁵⁾

① 학습자가 과거의 역사적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다.

② 학습자에게 흥미를 높여 주고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준다.

③ 향토사 연구와 자료의 활용으로 향토사와 국가사를 관련시켜 살펴봄으로써 지역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④ 학교와 외계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장 학습을 시킴으로써 학교라는 올타리를 벗어나 생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

⑤ 학습자와 지역 주민과의 접촉, 경험의 증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향토사에 대한 이해를 촉구할 수 있다.

⑥ 추상적인 이해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교실내의 제한된 환경의 이용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소를 소개해 주고 지적인 많은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⑦ 지역 자체는 지리·환경·사회·경제·정치학 등 역사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 통합학문의 요소를 이루고 있어 다른 과목의 교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⑧ 향토사는 풍부한 자료의 종류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⑨ 향토사는 학문적 내용과 실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과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⑩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한다.

15)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297~8. 제인용.

⑪ 역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다.

향토사 학습은 이러한 교육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향토사 학습은 지금까지의 역사학습이 듣고 암기하는 학습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학습으로,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학습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교과서의 일반적인 사항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역사가 ‘나’와는 관계없는 무미건조한 사건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3. 향토사 학습의 단계별 특징

(1) 역사의식의 발달과정

역사의식¹⁶⁾이란 역사적 인식과 역사적 행위의 근저가 되는 존재의식이며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역사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역사적 관심과 역사적 이해력과 역사적 식견이며, 역사적 능력과 태도로서 그것은 계기적·병렬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가변적 역사적 감각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학습자의 능력과 학습정도,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발달 단계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가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은 감고의식(感古意識)으로부터 성장하여 점차 고금의

16) 역사의식은 일반적으로 첫째, 時間的 距離感 즉, 역사적 시간에 대한 의식, 둘째는, 옛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흥미와 關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관심의 意識, 세째,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認識하게 되는가 하는 思考의 系列 즉, 역사적 사고의 系統性을 意識하는 것들이 있다.(이원순 외. 역사과 교육. 능력개발. 1977. p 58.)

식(古今意識) → 변천의식(變遷意識) → 인과의식(因果意識) → 시대의식(時代意識) → 발전의식(發展意識)으로 발달하여 간다.

감고의식(시원 의식)은 역사의식 중 가장 최하위에 있는 의식으로 막연하게 옛것을 느끼며 옛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즉 막연하게 옛것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의식 단계에 있는 아동들에게는 시간의식을 짹트게 해 주어야 한다.

고금의식(고금 상이 의식, 고금 대비 의식)이란 인간의 생활양상이나 양식, 여러 가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은 옛날의 것과 오늘날의 것을 비교하여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다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계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시간의식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향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여 달라진 모습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의식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림연표를 활용하여 어제와 오늘의 다른 모습을 이해시킴이 효과적이다.

변천의식(변천 발달 의식)은 고금을 대비하여 다르다는 것을 알뿐만 아니라 옛것과 지금의 것의 다르다면 그것은 옛 것에서 지금의 상태로 변천 발달하여 왔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계이다. 이 단계의 의식은 시간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연표학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4학년 사회과 교재에는 연대표를 게재하여 연표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과의식(인과 관계 의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상이 변천·발달해 왔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천·발달하여 왔는가를 파악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의 단계는 사상의 변천에 대한 원인과 과정·결과·의의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역사적 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사실과 사실의 관련성, 사실과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의 학습자들에게는 분류사적 주제 중심의 생활사를 교재로 하여 지도 할 수 있다.

시대의식(시대 구조 의식, 시대 관련 의식)은 역사적 흐름을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시대의 특색과 흐름, 시대와 시대의 관련, 시대의 구조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는 의식이다. 이 단계의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문화유산에 대한 의의는 물론 역사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발전의식은 역사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천, 발전하여 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의식이다. 역사의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현재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¹⁷⁾

이 중에서도 변천의식 이하의 역사의식을 하위의식, 인과의식 이상의 역사의식을 상위의식이라고 하며 역사의식은 하위의식에서 상위의식으로 발전하여 간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은 관념적·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의 역사적 사실이나 개개인의 인생체험과 학습을 통하여 성장하여 가며, 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단계별 역사의식의 특징

각급 학교의 학년과 역사의식의 발달단계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을 보면 [표Ⅱ-1]과 같다.

17)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136~137.

[표 II-1] 초등학교 학생의 학년별 역사의식의 단계와 그 특징

학년	역사의식의 단계	특징
1, 2 학년	감고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연하게 옛 것을 느낌 ○ 자기 중심적임 ○ 역사적 時의식을 신변적인 것을 중심으로 파악 ○ 사물에서 옛 것을 느낌(직관적임) ○ 현실과 허구와의 구별 곤란 ○ 역사 학습 불가능 ○ 고금(古今)의 상위 구별 불명확 ○ 동화적 이야기 좋아함
3학년	고금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것과 오늘날의 것을 구별함 ○ 자기 중심의 해소 ○ 옛 것과 지금 것을 비교하여 다르다는 것을 이해 ○ 현실적 영역과 비현실적 영역이 분화하기 시작 ○ 시간의 거리를 느낌
4학년	변천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낌 ○ 직접적 인과관계 파악하기 시작 ○ 동간격 단위의 시간성을 느낌 ○ 역사의식의 전환기임 ○ 신변적인 사실과 현상에 관심 커짐 ○ 연표학습 활동가능 ○ 영웅적 무용적 이야기 좋아함
5학년	인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흐름을 종적으로 파악 가능함 ○ 사회 생활의 의미 비교 ○ 변천 발달의식 심화 ○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파악함 ○ 생활 주변의 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관심 커짐 ○ 주제별 학습가능
6학년	시대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과의식의 심화 ○ 인물을 시대와 관련지어 파악 ○ 사회사상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파악 곤란 ○ 체계적 역사학습 가능함(초보적 구조임) ○ 시대구조나 시대관련의식은 미약함 ○ 통사학습 가능 ○ 전기적 일화적 이야기 좋아함

[표 II-2]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

학 교	학년	역사의식의 발달	특 징
중 학 교	1	시대의식 (시대관련의식, 시대구조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과의식의 발달 ○ 인물을 시대적·사회적 배경과 관련 파악 ○ 인물사적 영웅전기적임 ○ 시대구조의식 짹틈 ○ 개인적·도덕적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 상호간의 기능적 관계 파악 ○ 사실과 사실의 관련 파악 ○ 사실과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 파악 ○ 중 2년은 역사의식의 전환기 ○ 영웅 송배적 경향 ○ 사회의식이 짹틈 ○ 사회 도덕적임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의식 확대 ○ 3학년 2학기에는 발전의식 짹틈 ○ 시대구조와 시대관련 파악 ○ 사실과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 파악
고 등 학 교	1	발전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구조와 시대관련 파악 ○ 사회의식의 확대 ○ 세계의식 확대 ○ 역사적 동적 파악 가능 ○ 인간성의 성찰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이해의 심화(비판적임) ○ 사회의식의 심화(비판의식 발달) ○ 사회사상의 비판적 관련적 파악 ○ 현대적 사상에 관심 증대 ○ 역사의 발전적 파악 ○ 역사 의미의 통찰력 짹틈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의 역사의식은 시대의식까지 발달함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은 단순한 시대의식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있어서는 시대구조의식이나 시대관련의식은 발달하지 않고, 관심과 흥미, 사상의 변천·발달의식, 인과관계의식이 발달하므로 지나치게 시대구조와 시대관련의식이라든가 시대의 특색과 흐름을 강조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와 그 특징은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학생에 이르면 초등학교 때에 성장한 역사의식이 더욱 발달하면서, 특히 시대의식이 발달하고 인과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면 시대구조와 시대관련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역사적 사상의 발전적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역사의식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향토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¹⁸⁾

초등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은 1학년에서는 자기의 성장 과정을 통해 변화의 개념과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시간 의식을 갖게 하고, 2학년에서는 국경일등 기념일을 전후로 계기 교육을 실시하면서 옛날과 오늘날과의 차이점을 느끼도록 학습시키며, 3학년에서는 자기 고장의 생활 변천과 설화, 민간 신앙에 대하여 의식을 깨닫게 한다. 4학년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서 가치관을 확립하는 등 문화재 보호 활동에 주력한다. 5학년에서는 교통·통신·의식주 생활·산업 기술의 발달 등 자기 주변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학습시킨다. 6학년에서는 향토사를 통사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자기 고장의 향토사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학습하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우리 고장 문화재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유아·초등학교에서의 향토사 학습을 통해 이미 기초적으로 터득한 변천, 인과관계, 계속성, 발전성 등의 개념을 심화·확대하는 한편, 역사 의식, 역사적 개념, 향토의 문제점 및 해결 노력 등 향토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시대적, 문화적 성격 등을 통사적 접근 방법으로 집

18)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원. 1998

중 학습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미약하나마 성숙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향토사의 문화 활동, 사회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도하고, 그것들을 인간의 생활 여러 측면과 상호 관련성 및 다른 지역의 향토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통하여 향토의 특성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도록 한다.¹⁹⁾

4.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향토사 연구의 유형은 문헌학적 연구로서의 향토사 연구, 자료조사 발굴로서의 향토사 연구, 자료활용으로서의 향토사 연구로 대별할 수 있는데, 문헌학적 연구로서의 향토사 연구와 자료조사 발굴로서의 향토사 연구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학문적 입장에서 諸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료활용으로서의 향토사 연구는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를 교육현장에 끌어들여 학습효과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료를 활용하거나 학문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향토사 연구는 문헌적 연구나 새로운 자료의 조사 발굴보다는 학문적 연구성과의 바탕 위에서 실시되는 역사교육의 방법과 학습형태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우리나라의 역사연구에 있어서 향토사 연구의 이론에 관한 단행본은 거의 없으며, 학회지나 역사교육의 이론서에 향토사 관련 항목이 있어서 향토사의 개념, 자료의 종류, 지도방법 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학위논문에 나타난 연구의 성과는 이론적 배경의 연구와 현장 중심의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론적 중심의 연구로는 송춘영²¹⁾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송춘영은 향토

19) 김양규. 충주지역의 향토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8. p8~9.

20)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302~303.

21) 송춘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론집13·14합집. 역사

사 연구의 성과와 현장 교육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향토사의 개념, 향토사 자료의 종류, 향토사 학습의 지도방안, 향토사 학습의 수업모형 등 이후의 향토사 학습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외의 연구로는 정승혜²²⁾의 연구가 돋보인다. 정승혜는 외국의 향토사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향토사의 성격, 향토사와 국가사와의 관계, 향토사 학습의 활용방안, 향토사 학습의 지도와 절차 등 밝히고, 올바른 향토사 학습을 위해 서는 교사 자신이 향토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며 향토사 자료집이나 자료해설집을 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토사 자료집을 만들고 향토사 학습의 경험을 모으는 데에 있어서는 인접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 간의 협조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의 신성기²³⁾는 주제접근법에 의한 학습지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김연성²⁴⁾은 국내외의 향토사 연구 동향과 향토사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그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대단히 미약하며, 향토사 자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의 목적이 애향심의 고취나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의 함양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태형²⁵⁾은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서 향토사의 의미와 성격, 역사의식의 개념과 구조, 전라남도 지역의 향토사료를 추출하여 지역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향토사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소극적인 태도, 市·郡誌, 邑誌의 무비판적인 수용의 문제점과 인접지역 내에 있는 역사 교사들 간의 협의체 구성, 지역중심 교과서 편찬체제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할 점으로 제시하였다. 김정희²⁶⁾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국사과 교수-학습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사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향토사 자료를 분

교육학회. 1990

- 22)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육에서의 향토사 학습방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23) 신성기.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에 의한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91.
24) 김연성. 향토사의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25)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2.
26) 김정희. 국사학습을 위한 향토자료 활용방안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3.

산적 접근 방법에 따라 정리하고, 여러 향토사 학습 방안 중에서 국사 학습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물포여자 중학교 당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에게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김정희는 중앙 중심의 교육과정과 평가체제에서는 향토사 자료의 활용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울림이 되며, 교사들 또한 교과서 중심의 소극적인 역사교육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역사교육의 본질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위한 향토사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훈²⁷⁾은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재구성 방안과 지역화 교재 편찬 방안을 모색해 보고 향토사 학습에 있어서의 수업모형에 따른 학습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훈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향토사 학습이 국사학습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재 편찬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재의 편찬은 해당지역의 역사교사와 향토사학자, 교육전문가들에게 향토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고, 향토의 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이제실²⁸⁾은 수원의 정조 관련 유적을 중심으로, 임효명²⁹⁾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 학습 방안에 대하여, 김양규³⁰⁾는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향토사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제주도와 관련한 학위 논문으로는 고효숙³¹⁾이 제주도 향토사 학습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 교과서의 향토사 학습내용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분산적 접근과 주제적 접근에 의해 제주도 향토사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하였는데, 특히 주제적 접근에 의해 1) 제주도의 역사, 2) 제주도 상고시대의 용담동 유적, 3) 제주인의 생활유물, 4) 세화리 잠녀항쟁, 5) 제주도의 인물, 6) 제주도의 유적지 오현단 등으로 조직되었다.

27) 김정훈.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1994.

28) 이제실. 국사수업에 있어서 향토사 자료의 활용방안.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1995.

29) 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6.

30) 김양규. 충주지역의 향토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8.

31) 고효숙. 향토사 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 방법.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4.

고효숙은 향토사 학습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사의 주관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선행의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더할 때 보다 좋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학습방법의 개선은 현장교사들의 의욕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과 역사교육 연구가들의 이론적인 연구가 조화 있게 맺어질 때 더욱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향토사 학습은 애향심의 고취에 치중한 나머지 자칫 편협한 지역감정으로 발전될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토사의 내용이나 학습은 궁극적으로 민족사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절차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할 것을 강조하였다. 고용호³²⁾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흥미와 향토사 수업과의 관계, 아동의 흥미를 기초로 하면서 지속·발전시킬 수 있는 향토사 수업 모형 구안, 아동의 향토에 대한 역사적 흥미 조사 및 분석과 이에 기초하여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향토사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고효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사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고, 고용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사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인식을 바탕으로 향토사 학습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32) 고영호.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 모형의 구안 및 적용. 한국교원대 석사학 위논문. 1997.

III. 연구의 방법

1. 향토사 자료의 분류와 선정 기준

우리 주변에는 조상들의 체취가 젖어 있는 유형·무형의 역사적 산물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조상들의 흔적은 향토의 역사적 자료로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향토사 자료는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향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향토사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³³⁾

첫째, 물질적 자료로는 땅·길·강 등의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공장·저수지·고분·사찰·제단·고인돌·선돌·문화지층·고건축물(가옥)·탑·서원·향교·박물관·도서관·미술관·사료관·문서관·전쟁지·성터·석기·토기·금속기·저수지·도로 패총 등과 같은 것으로 이것들을 인간이 남긴 유형의 잔존물들이다.

둘째, 제도적 자료로는 족보·가족·정당·조합·학교·단체·종교의식·국경일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인위적 관행적인 인간 생활의 결과로 나타난 자료이다.

셋째, 무형적(심리적) 자료로는 풍속·전통·관습·민속놀이·민속 음악·민속무용·전통 음식·의복 등과 같은 것으로 특히 민속은 원형의 충실히 보존과 전수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인물 자료는 역사적 인물과 현존 인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역사적 인물 중 향토의 역사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은 학습자에게 친근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현존하는 인물은 자료 인사로 초빙하여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물 자료라는 한국사의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한국사와 유관한 외국의 인물도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33) 향토사 자료의 분류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309~311.

이원순, 이정인. 역사교육. 정음문화사. 1985. p 172~174.

이원순 외 2인.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3. p 294

향토사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외에도 문화재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등으로도 분류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³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먼저 명시하고, 제2조에서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³⁵⁾

-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 2) 무형문화재 :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3) 기념물 : 다음 각 항목에서 정하는 것.
 - ① 사지 · 고분 · 패총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 포함총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② 경승지로서 예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것.
 - ③ 동물(그 서식지 · 번식지 · 도래지를 포함한다) ·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 광물 · 동굴 · 지질 ·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4) 민속자료 : 의식주 · 생업 · 신앙 ·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 기구 ·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국민의 문화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며, ‘문화재’라고 할 때는 유형 · 무형의

34) 文化財란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普遍化 된 것은 政府에서 文化財保護法(1962. 1. 10. 법률 제961호)을 제정한 이후부터이다.

35) 문화재보호법 - [법률 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시행일 99. 7. 1]

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광물 그리고 동·식물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나라가 상대국을 정복하는 최후단계는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는 일이다. 그것은 비록 상대국이 주권을 잃었다 해도 그 민족문화가 이어져 가는 한 그 민족은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문화재를 실어 내어간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의 ‘얼’을 빼앗기 위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을 회상해 보며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민족의 ‘얼’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³⁶⁾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료가 모두 향토사 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가에 의해서 수집·정리되고, 비판·해석되어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 판단이 내려진 것이어야 한다. 향토사 학습을 위한 자료의 선정에는 몇 가지 준수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³⁷⁾

- ① 학습자에게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시키고 역사적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한다.(목표성)
- ② 학습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내용성)
- ③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알맞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능력과 발달성)
- ④ 역사가에 의하여 가치성·증빙성이 인정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가치와 증빙성)
- ⑤ 시기와 작가,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근원성)
- ⑥ 문헌이나 문서자료는 번역된 권위 있는 단행본이나 문고판을 선정해 되 번역의 정확성을 고려한다.(정확성)
- ⑦ 문헌이나 문서자료 외에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 과학적 자료도 선정하여야 한다.(다양성)

이러한 조건을 기준으로 향토사 학습 자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36) 김영한. 문화재의 개요. 향토사연구 제1집.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989. p 195.

37) 高孝淑. 鄉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學習方法.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p 9~10

이상의 조건이 자료의 선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자료의 가치나 형태성에 따라 또는 교재의 목표나 내용이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 현장의 설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실태와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도 교수의 지도와 동료 교사의 검토를 거쳐 교사용 설문지와 학생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2002년 2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제주 지역의 28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과 선생님들에게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에서 8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학생용 설문지는 2002년 4월에 대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166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 대상은 각 학년 4개 학급 중에서 1, 3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향토사 학습에 관한 실태와 인식도를 알아보았으며, 교사-학생의 인식도 및 교사의 성별, 교직경력별로 변인들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IV. 제주 지역 향토사 학습의 실태 분석

1. 학생들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분석

[표IV-1]에서 학생들의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지 정도는 ‘잘 모른다’(41.0%), [표IV-2]에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편’(65.7%)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듯이 향토사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의 응답([표IV-3]) 결과에서 보듯이 ‘매우 필요하다’(23.5%)와 ‘조금 필요하다’(71.7%)의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표IV-1]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합계
1학년	1(0.6)	27(16.3)	28(16.9)	2(1.2)	58(34.9)
2학년		34(20.5)	20(12.0)	2(1.2)	56(33.7)
3학년	3(1.8)	28(16.9)	20(12.0)	1(0.6)	52(31.3)
합 계	4(2.4)	89(53.6)	68(41.0)	5(3.0)	166(100.0)

[표IV-2]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매우 많은 편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관심이 없 는 편이다	전혀 없는 편이다	합계
1학년	2(1.2)	15(9.0)	35(21.1)	6(3.6)	58(34.9)
2학년		12(7.2)	43(25.9)	1(0.6)	56(33.7)
3학년	1(0.6)	16(9.6)	31(18.7)	4(2.4)	52(31.3)
합 계	3(1.8)	43(25.9)	109(65.7)	11(6.6)	166(100.0)

[표IV-3]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단위: 명, (%)

학년 \ 문항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합계
1학년	15(9.0)	42(25.3)	1(0.6)		58(34.9)
2학년	13(7.8)	39(23.5)	3(1.8)	1(0.6)	56(33.7)
3학년	11(6.6)	38(22.9)	3(1.8)		52(31.3)
합 계	39(23.5)	119(71.7)	7(4.2)	1(0.6)	166(100.0)

[표IV-4]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학년 \ 문항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시킬 수 있다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성 교육의 좋은 교육 장이므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합계
1학년	30(18.1)	19(11.4)	2(1.2)	5(3.0)	2(1.2)	58(34.9)
2학년	27(16.3)	17(10.2)	2(1.2)	7(4.2)	3(1.8)	56(33.7)
3학년	29(17.5)	19(11.4)	1(0.6)	3(1.8)		52(31.3)
합 계	86(51.8)	55(33.1)	5(3.0)	15(9.0)	5(3.0)	166(100.0)

[표IV-4]에서는 향토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향토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1, 2, 3학년 모두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 함양’, ‘역사적 사고력 함양’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에서 보듯이

향토사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에서도 향토 문제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수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IV-5]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시기에 처음으로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되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1학년과 3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2학년은 중학교에서 향토에 관심을 갖게된 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통계 결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IV-5]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

단위: 명, (%)

문항 학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학년		6(3.6)	30(18.1)	20(12.0)	2(1.2)	58(34.9)
2학년	3(1.8)	2(1.2)	18(10.8)	25(15.1)	8(4.8)	56(33.7)
3학년		3(1.8)	19(11.4)	15(9.0)	15(9.0)	52(31.3)
합 계	3(1.8)	11(6.6)	67(40.4)	60(36.1)	25(15.1)	166(100.0)

$$\chi^2 = 24.637 \quad df = 8 \quad *p < .05$$

[표IV-6]은 학생들에게 향토사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 현행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알아 본 것이다. 여기서 적극 찬성과 찬성을 합친 응답이 68.0%로서 상당수의 학생들

이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 향토사 학습을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국사교과서 보다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향토사를 내용으로 하는 교재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현행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 볼 때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검인정 교과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 결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IV-6] 국사교과서의 검인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단위: 명, (%)

학년 \ 문항	적극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 한다	합계
1학년	1(0.6)	27(16.3)	15(9.0)	15(9.0)	58(34.9)
2학년	10(6.0)	30(18.1)	11(6.6)	5(3.0)	56(33.7)
3학년	9(5.4)	36(21.7)	6(3.6)	1(0.6)	52(31.3)
합 계	20(12.0)	93(56.0)	32(19.3)	21(12.7)	166(100.0)

$$\chi^2 = 26.771 \quad df = 6 \quad *** p < .001$$

[표IV-7]은 학생들이 향토사 학습을 통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은 향토의 유래와 발전(34.3%), 향토의 발전에 힘써온 조상의 노력(28.3%),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27.1%), 향토의 문제점 발견과 개선책(9.6%)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향토사 학습의 내용 구성에서 향토의 유래와 발전 과정 및 조상,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향토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교재 편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7] 향토사 학습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은 점

단위: 명, (%)

문항 학년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향토의 유래와 발전	향토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책	기타	합계
1학년	17(10.2)	13(7.8)	21(12.7)	6(3.6)	1(0.6)	58(34.9)
2학년	11(6.6)	20(12.0)	18(10.8)	7(4.2)		56(33.7)
3학년	17(10.2)	14(8.4)	18(10.8)	3(1.8)		52(31.3)
합 계	45(27.1)	47(28.3)	57(34.3)	16(9.6)	1(0.6)	166(100.0)

[표IV-8]은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다. 지역 사회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향토사 교재가 필요하다는 응답(41.6%)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역사 수업의 흥미와 구체적인 체험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토사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인물, 풍속, 종교, 교통, 인구, 의식 등의 총체이다. 향토사 교재의 활용은 자신의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IV-8]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

단위: 명, (%)

문항 학년	역사수업에 흥미를 복돋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조상의 업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기타	합계
1학년	16(9.6)	20(12.0)	6(3.6)	16(9.6)		58(34.9)
2학년	18(10.8)	21(12.7)	7(4.2)	9(5.4)	1(0.6)	56(33.7)
3학년	8(4.8)	28(16.9)	6(3.6)	10(6.0)		52(31.3)
합 계	42(25.3)	69(41.6)	19(11.4)	35(21.1)	1(0.6)	166(100.0)

[표IV-9]는 수업 시간에서 활용하는 향토사 학습자료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습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교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사에 의해 과제로 제시되어 제작된 학습자료(19.2%), 교사와 학생의 공동 제작(12.7%)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현장 체험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도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일방적으로 보급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을 좀더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표IV-9] 향토사 자료의 제작 유형

단위: 명, (%)

학년 문항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제공한 자료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제작	학생들이 과제로 제작한 자료	기타	합계
1학년	37(22.3)	7(4.2)	13(7.8)	1(0.6)	58(34.9)
2학년	33(19.9)	9(5.4)	14(8.4)		56(33.7)
3학년	41(24.7)	5(3.0)	5(3.0)	1(0.6)	52(31.3)
합 계	111(66.9)	21(12.7)	32(19.3)	2(1.2)	166(100.0)

[표IV-10]에서는 학생들이 향토사 자료 활용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효율적인 향토사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되고, 또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제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향토사 자료 활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22.3%)과 향토사 자료의 부족(21.7%)도 문제점으로 비교적 높게 지적하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표IV-10]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

단위: 명, (%)

문항 학년	국정교과 서체제	입시 위주 의 교육	수업시간 의 부족	향토사 자 료의 부족	교사와 학생 의 관심 부족	합계
1학년	4(2.4)	12(7.2)	14(8.4)	12(7.2)	16(9.6)	58(34.9)
2학년	4(2.4)	23(13.9)	3(1.8)	15(9.0)	11(6.6)	56(33.7)
3학년	5(3.0)	24(14.5)	4(2.4)	9(5.4)	10(6.0)	52(31.3)
합계	13(7.8)	59(35.5)	21(12.7)	36(21.7)	37(22.3)	166(100.0)

[표IV-11]에서는 어떤 기자재에 의한 향토사 수업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 자료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 기자재의 확충과 향토사 교육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IV-11] 향토사 학습 자료의 유형

단위: 명, (%)

문항 학년	인터넷 자료	CD, VTR 자료	OHP 자료	슬라 이드	유인물 자료	기타	합계
1학년	26(15.7)	26(15.7)			3(1.8)	3(1.8)	58(34.9)
2학년	25(15.1)	18(10.8)	5(3.0)	1(0.6)	5(3.0)	2(1.2)	56(33.7)
3학년	25(15.1)	16(9.6)	4(2.4)	4(2.4)	2(1.2)	1(0.6)	52(31.3)
합계	76(45.8)	60(36.1)	9(5.4)	5(3.0)	10(6.0)	6(3.6)	166(100.0)

[표IV-12]는 학생들이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알아 본 것이다. 학생들은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다른 동기에 비해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과 수업 시간과 대중 매체를 통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수학여행과 소풍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중 매체를 수업에서 활용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도 얻을 수 있다.

[표IV-12]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

단위: 명, (%)

학년	문화 행 이 나 소 품 을 통 하 여	수학여행 이나 소풍 을 통 하 여	계기교육 시 간 을 통 하 여	교과 수업 시간을 통 하 여	대중 매체를 통 하 여	부모나 지 역 주민을 통 하 여	기타	합계
1학년	28(16.9)	4(2.4)	12(7.2)	6(3.6)	7(4.2)	1(0.6)	58(34.9)	
2학년	21(12.7)	4(2.4)	19(11.4)	7(4.2)	5(3.0)		56(33.7)	
3학년	21(12.7)	7(4.2)	11(6.6)	8(4.8)	5(3.0)		52(31.3)	
합계	70(42.2)	15(9.0)	42(25.3)	21(12.7)	17(10.2)	1(0.6)	166(100.0)	

[표IV-13]은 향토의 문화재를 어떤 교과 수업을 통하여 알았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은 향토 문화재를 역사(71.7%), 일반사회(13.9%), 지리(13.3%) 순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토사 학습이 역사시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31]에서 교사들은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모든 교과(42.5%), 역사(35.6%) 일반사회(11.5%) 지리(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3]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학습 교과

단위: 명, (%)

문항 학년	역사	일반사회	지리	윤리	합계
1학년	45(27.1)	8(4.8)	4(2.4)	1(0.6)	58(34.9)
2학년	42(25.3)	6(3.6)	8(4.8)		56(33.7)
3학년	32(19.3)	9(5.4)	10(6.0)	1(0.6)	52(31.3)
합 계	119(71.7)	23(13.9)	22(13.3)	2(1.2)	166(100.0)

[표IV-14]은 답사 활동 방법을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하기(51.8%)를 부모님과 친구(20.5%) 또는 스스로 답사(26.5%) 하는 것보다 더 원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체험 학습이 교사들과 학생과의 공동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사 활동이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IV-14] 향토사 답사활동의 유형

단위: 명, (%)

문항 학년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하기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현 장 답사하기	과제물을 제출 하여 학생들 스 스로 답사하기	기타	합계
1학년	30(18.1)	10(6.0)	16(9.6)	2(1.2)	58(34.9)
2학년	29(17.5)	11(6.6)	16(9.6)		56(33.7)
3학년	27(16.3)	13(7.8)	12(7.2)		52(31.3)
합 계	86(51.8)	34(20.5)	44(26.5)	2(1.2)	166(100.0)

[표IV-15]은 향토사 문제를 고입 시험이나 면접 시험에 출제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의 응답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급 학년이 될수록 찬성한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IV-15] 향토사 문제의 고입시험에 반영 여부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적극 찬성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 한다	합계
1학년	4(2.4)	17(10.2)	20(12.0)	17(10.2)	58(34.9)
2학년	6(3.6)	22(13.3)	22(13.3)	6(3.6)	56(33.7)
3학년	10(6.0)	27(16.3)	12(7.2)	3(1.8)	52(31.3)
합 계	20(12.0)	66(39.8)	54(32.5)	26(15.7)	166(100.0)

$$\chi^2 = 20.422 \quad df = 6 \quad *p < .05$$

[표IV-16]은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적극 찬성과 찬성을 합쳐 60.9%로 향토사에 대한 독립된 교육과정의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학교 현장에서도 효과적인 향토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독립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6] 향토사과목이 독립된 교육과정으로의 편성 여부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적극 찬성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 한다	합계
1학년	4(2.4)	22(13.3)	21(12.7)	11(6.6)	58(34.9)
2학년	5(3.0)	34(20.5)	13(7.8)	4(2.4)	56(33.7)
3학년	3(1.8)	33(19.9)	15(9.0)	1(0.6)	52(31.3)
합 계	12(7.2)	89(53.6)	49(29.5)	16(9.6)	166(100.0)

[표IV-17]은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향토사학과 설치하는데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80.1%) 이에 찬성하고 있다. 고입시험에 반영되고 대학의 학과에 설치가 된다면 향토사 학습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IV-17] 대학에 향토사학과의 설치 여부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합계
1학년	1(0.6)	42(25.3)	11(6.6)	4(2.4)	58(34.9)
2학년	11(6.6)	35(21.1)	8(4.8)	2(1.2)	56(33.7)
3학년	7(4.2)	37(22.3)	6(3.6)	2(1.2)	52(31.3)
합 계	19(11.4)	114(68.7)	25(15.1)	8(4.8)	166(100.0)

[표IV-18]은 향토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점을 조사한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문화재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관계 당국의 문화재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향토애를 느끼는 긍정적인 응답도 있지만(27.7%) 별로 의미가 없다는 응답도 18.7%가 된다는 점은 앞으로 향토 문화재 답사가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수 있다.

[표IV-18] 향토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감정

단위: 명, (%)

문항 학년 \\\diagdown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자주 답사하여야 하겠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고장 을 빛내겠다	별로 의미가 없다	합계
1학년	9(5.4)	7(4.2)	23(13.9)	6(3.6)	13(7.8)	58(34.9)
2학년	13(7.8)	2(1.2)	26(15.7)	3(1.8)	12(7.2)	56(33.7)
3학년	24(14.5)	5(3.0)	15(9.0)	2(1.2)	6(3.6)	52(31.3)
합 계	46(27.7)	14(8.4)	64(38.6)	11(6.6)	31(18.7)	166(100.0)

2. 교사들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분석

[표IV-19]는 교사들의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것이다. 남녀 교사 대부분이 향토 문화재를 인지하고 있다(89.6%). 그런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향토 문화재에 대해 인지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20]에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관심을 갖는 편’의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87.3%). 남녀 성별이나 교직 경력에 따른 조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볼 때 교사들은 향토사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의 응답([표IV-21]) 결과에서 보듯이 ‘매우 필요하다’(23.5%)와 ‘조금 필요하다’(71.7%)의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표IV-19]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문항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 모른다	합계
성 별	남자	7(11.3)	49(79.0)	62(100.0)
	여자		22(88.0)	25(100.0)
	합계	7(8.0)	71(81.6)	87(100.0)
경 력	5년 이하		10(12.2)	11(13.4)
	6~10년		5(6.1)	5(6.1)
	11~14년	1(1.2)	13(15.9)	17(20.7)
	15년 이상	6(7.3)	39(47.6)	49(59.8)
	합계	7(8.5)	67(81.7)	82(100.0)

[표IV-20]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문항	매우 많은 편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합계
성별	남자	11(17.7)	44(71.0)	7(11.3)	62(100.0)
	여자	4(16.0)	17(68.0)	4(16.0)	25(100.0)
	합계	15(17.2)	43(70.1)	11(12.6)	87(100.0)
경력	5년 이하	2(2.4)	8(9.8)	1(1.2)	11(13.4)
	6~10년		3(3.7)	2(2.4)	5(6.1)
	11~14년	4(4.9)	11(13.4)	2(2.4)	17(20.7)
	15년 이상	8(9.8)	35(42.7)	6(7.3)	49(59.8)
	합계	14(17.1)	57(69.5)	11(13.4)	82(100.0)

[표IV-21]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문항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합계
성별	남자	33(53.2)	28(45.2)	1(1.6)	62(100.0)
	여자	15(60.0)	10(40.0)		25(100.0)
	합계	48(55.2)	38(43.7)	1(1.1)	87(100.0)
경력	5년 이하	6(7.3)	5(6.1)		11(13.4)
	6~10년	1(1.2)	4(4.9)		5(6.1)
	11~14년	12(14.6)	5(6.1)		17(20.7)
	15년 이상	26(31.7)	23(28.0)		49(59.8)
	합계	45(54.9)	37(45.1)		82(100.0)

[표IV-22]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문항 구분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 향심을 함양 시 킬 수 있다	역사적 사 고력을 함 양시킬 수 있다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성 교육 의 좋은 교육장이 므로	자기주도 적 학습 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다	합계
성별	남자	30(48.4)	14(22.6)	7(11.3)	4(6.5)	7(11.3)	62(100.0)
	여자	11(44.0)	10(40.0)		2(8.0)	2(8.0)	25(100.0)
	합계	41(47.2)	24(27.6)	7(8.0)	6(6.9)	9(10.3)	87(100.0)
경력	5년 이하	6(7.3)	2(2.4)	1(1.2)	1(1.22)	1(1.2)	11(13.4)
	6~10년		2(2.4)	1(1.2)	2(2.4)		5(6.1)
	11~14년	4(4.9)	8(9.8)	2(2.4)	1(1.2)	2(2.4)	17(20.7)
	15년 이상	29(35.4)	11(13.4)	3(3.7)	2(2.4)	4(4.9)	49(59.8)
	합계	39(46.7)	23(28.0)	7(8.5)	6(7.3)	7(8.5)	82(100.0)

[표IV-22]에서는 향토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향토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교사들은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 함양', '역사적 사고력 함양',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의 순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에서 보듯이 향토사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향토사 교재를 개발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향토사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IV-23]에서 교사들은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시기를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로 보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 IV-5]의 조사 결과와도 관련이 있으며,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서와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향토사 관련 단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IV-23]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시기

단위: 명, (%)

문항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성 별	남자	1(1.6)	10(16.1)	27(43.5)	18(29.0)	6(9.7)	62(100.0)
	여자	1(4.0)	1(4.0)	10(40.0)	10(40.0)	3(12.0)	25(100.0)
	합계	2(2.3)	11(12.6)	37(42.5)	28(32.2)	9(10.3)	87(100.0)
경 력	5년 이하	1(1.2)	1(1.2)	5(6.1)	3(3.7)	1(1.2)	11(13.4)
	6~10년		1(1.2)	2(2.4)	1(1.2)	1(1.2)	5(6.1)
	11~14년	1(1.2)		6(7.3)	8(9.8)	2(2.4)	17(20.7)
	15년 이상		5(6.1)	23(28.0)	16(19.5)	5(6.1)	49(59.8)
	합계	2(2.4)	7(8.5)	36(43.9)	28(34.1)	9(11.0)	82(100.0)

[표IV-24] 현행 국사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의 개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문항 적극 찬성 한다	찬성 한다	반대 한다	적극 반대 한다	합계
성별	남자	7(11.5)	45(73.8)	8(13.1)	1(1.6)	61(100.0)
	여자	2(8.3)	19(79.2)	3(12.5)		24(100.0)
	합계	9(10.6)	64(75.3)	11(12.9)	1(1.2)	85(100.0)
경력	5년 이하		9(11.3)	2(2.5)		11(13.8)
	6~10년		5(6.3)			5(6.3)
	11~14년	5(6.3)	10(12.5)	1(1.3)		16(20.0)
	15년 이상	4(5.0)	35(43.80)	8(10.0)	1(1.3)	48(60.0)
	합계	9(11.3)	59(73.8)	11(13.8)	1(1.3)	80(100.0)

[표IV-24]는 교사들의 향토사 학습을 위한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을 찬성하고 있다. 남녀 성별이나 경력별에 따른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향토사 학습을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향토사를 내용으로 하는 교재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현행 국정체제의 국사 교과서를 검인정체제의 교과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표IV-25] 향토사 학습에서의 강조점

단위: 명, (%)

구분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향토의 유래와 발전	향토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책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11(18.6)	18(30.5)	22(37.3)	7(11.9)	1(1.7)	59(100.0)
	여자	3(13.0)	6(26.1)	8(34.8)	5(21.7)	1(4.3)	23(100.0)
	합계	14(17.1)	24(29.3)	30(36.6)	12(14.6)	2(2.4)	82(100.0)
경 력	5년 이하	2(2.6)		7(9.1)	2(2.6)		11(14.3)
	6~10년	1(1.3)	1(1.3)	1(1.3)	1(1.3)		4(5.2)
	11~14년	1(1.3)	4(5.2)	6(7.8)	2(2.6)	1(1.3)	14(18.2)
	15년 이상	7(9.1)	17(22.1)	16(20.8)	7(9.1)	1(1.3)	48(62.3)
	합계	11(14.3)	22(28.6)	30(39.0)	12(15.6)	2(2.6)	77(100.0)

[표IV-25]은 교사들이 향토사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사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향토사 학습의 내용 구성에서 향토의 유래와 발전 과정 및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향토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갖도록 하기 위한 교재 편성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성별이나 경력별에 따른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표IV-26]은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다. 지역 사회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향토사 교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역사 수업의 흥미와 구체적인 체험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녀 성별이나 경력별에 따른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표IV-26]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

단위: 명, (%)

문항 구분		역사 수업 에 흥미를 북돋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조상의 업적을 알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6(9.8)	44(72.1)	4(6.6)	7(11.5)		62(100.0)
	여자	2(8.0)	20(80.0)	3(12.0)			25(100.0)
	합계	8(9.3)	64(74.4)	4(4.7)	10(11.6)		86(100.0)
경 력	5년 이하	1(1.2)	9(11.1)		1(1.2)		11(13.6)
	6~10년	1(1.2)	3(3.7)				4(4.9)
	11~14년	1(1.2)	13(16.0)		3(3.7)		17(21.0)
	15년 이상	5(6.2)	36(44.4)	4(4.9)	4(4.9)		49(60.5)
	합계	8(9.9)	61(75.3)	4(4.9)	8(9.9)		61(100.0)

[표IV-27]는 수업 시간에서 활용하는 향토사 학습자료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습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교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도 과제학습의 부여 등을 통한 학생들의 활동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IV-27]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학습 자료의 제작 유형

단위: 명, (%)

구분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제공한 자료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제작	선생님들이 과제로 제작한 자료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41(68.3)	13(21.7)	1(1.7)	5(8.3)	60(100.0)
	여자	16(64.0)	6(24.0)	2(8.0)	1(4.0)	25(100.0)
	합계	57(67.1)	19(22.4)	3(3.5)	6(7.1)	85(100.0)
경 력	5년 이하	7(8.8)	2(2.5)	1(1.3)	1(1.3)	11(13.8)
	6~10년	4(5.0)	1(1.3)			5(6.3)
	11~14년	9(11.3)	6(7.5)		1(1.3)	16(20.0)
	15년 이상	32(40.0)	10(12.5)	2(2.5)	4(5.0)	48(60.0)
	합계	52(65.0)	19(23.6)	3(3.8)	6(7.5)	80(100.0)

[표IV-28]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문화 교과 내용	교과 내용 제작 방법	교과 내용 제작 방법	교과 내용 제작 방법	교과 내용 제작 방법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8(9.3)	24(27.9)	5(5.8)	8(9.3)	15(17.4)	1(1.2)	61(70.9)
	여자	1(1.2)	10(11.6)	1(1.2)	4(4.7)	9(10.5)		25(29.1)
	합계	9(10.5)	34(39.5)	6(7.0)	12(14.0)	24(27.9)	1(1.2)	86(100.0)
경 력	5년 이하		4(4.9)		2(2.5)	4(4.9)	1(1.2)	11(13.6)
	6~10년	1(1.2)			1(1.2)	2(2.5)		4(4.9)
	11~14년	2(2.5)	8(9.9)	2(2.5)	1(1.2)	4(4.9)		17(21.0)
	15년 이상	4(4.9)	20(24.7)	4(4.9)	7(8.6)	14(17.3)		49(60.5)
	합계	7(8.6)	32(39.5)	6(7.4)	11(13.6)	24(29.6)	1(1.2)	81(100.0)

[표IV-28]에서는 교사들이 향토사 자료 활용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시 지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향토사 자료 활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심부족과 향토사 자료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표IV-29]에서는 향토사 수업시 어떤 기자재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은 인터넷 자료와 인쇄물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고등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OHP는 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IV-29] 향토사 학습자료의 종류

단위: 명, (%)

구분		문화	인터넷 자료	CD, VTR 자료	OHP 자료	슬라 이드	유인물 자료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25(43.9)	3(5.3)	6(10.5)	3(5.3)	17(29.8)	3(5.3)	57(100.0)	
	여자	8(32.0)	3(12.0)	2(8.0)		11(44.0)	1(4.0)	25(100.0)	
	합계	33(40.2)	6(7.3)	8(9.8)	3(3.7)	28(34.1)	4(4.9)	82(100.0)	
경 력	5년 이하	5(6.5)	1(1.3)			4(5.2)		10(13.0)	
	6~10년	2(2.6)	1(1.3)			1(1.3)		4(5.2)	
	11~14년	4(5.2)	2(2.6)	2(2.6)		6(7.8)	2(2.6)	16(20.8)	
	15년 이상	18(23.4)	2(2.6)	5(6.5)	3(3.9)	17(22.1)	2(2.6)	47(61.0)	
	합계	29(37.7)	6(7.8)	7(9.1)	3(3.9)	28(36.4)	4(5.2)	77(100.0)	

[표IV-30]은 교사들이 향토사 교육을 어느 시간에 지도하는가를 조사한 것이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해서 지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과 수업 시간과 대중 매체를 통하여 지도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는 ([표IV-12] 참고), 많은 교사들이 수학 여행이나 소풍을 향토사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30] 향토사 지도 시간

단위: 명, (%)

구분	문화 방향	수학여행 이나 소풍을 통하여	계기교 육 시간을 통하여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대중 매체를 통하여	부모나 지역 주민을 통하여	기타	합계
성별	남자	36(64.3)	4(7.1)	5(8.9)	2(3.6)	8(14.3)	1(1.8)	56(100.0)
	여자	19(79.2)	1(4.2)	2(8.3)	1(4.2)		1(4.0)	24(100.0)
	합계	55(68.8)	5(6.3)	7(8.8)	3(3.8)	8(10.0)	2(2.5)	80(100.0)
경력	5년 이하	9(12.0)		1(1.3)				10(13.3)
	6~10년	2(2.7)		1(1.3)	1(1.3)			4(5.3)
	11~14년	9(12.0)	2(2.7)	2(2.7)	1(1.3)		1(1.3)	15(20.0)
	15년 이상	33(44.0)	2(2.7)	2(2.7)	1(1.3)	7(9.3)	1(1.3)	46(61.3)
	합계	53(70.7)	4(5.3)	6(8.0)	3(4.0)	7(9.3)	2(2.7)	75(100.0)

[표IV-31]에서는 향토의 문화재를 어떤 교과 수업을 통하여 지도할 것인가를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은 향토 문화재를 모든 교과, 역사, 일반사회, 지리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향토 문화재에 대한 학습은 모든 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IV-31] 향토 문화재에 대한 지도 교과

단위: 명, (%)

문항 구분		역사	일반사회	자리	윤리	모든 교과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22(35.5)	7(11.3)	4(6.5)	2(3.2)	25(40.3)	2(3.2)	62(100.0)
	여자	9(36.0)	3(12.0)	1(4.0)		12(48.0)		25(100.0)
	합계	31(35.6)	10(11.5)	5(5.7)	2(2.3)	37(42.5)	2(2.3)	87(100.0)
경 력	5년 이하	5(6.1)	2(2.4)			4(4.9)		11(13.4)
	6~10년	1(1.2)				4(4.9)		5(6.1)
	11~14년	5(6.1)	2(2.4)	1(1.2)		9(11.0)		17(20.7)
	15년 이상	16(19.5)	6(7.3)	4(4.9)	2(2.4)	19(23.2)	2(2.4)	49(59.8)
	합계	27(32.9)	10(12.2)	5(6.1)	2(2.4)	36(43.9)	2(2.4)	82(100.0)

[표IV-32]에서는 답사 활동 방법을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은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도 아래 답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볼 때,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의 참여 아래 학생들의 답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의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학생들과 직접 답사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표IV-32] 바람직한 답사활동 유형

단위: 명, (%)

문항 구분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하기	부모님이 나 친구들 과 현장 답사하기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생들 스스로 답사하기	기타	합계
성 별	남자	38(62.3)	7(11.5)	13(21.3)	3(4.9)	61(100.0)
	여자	19(76.0)	4(16.0)	2(8.0)		25(100.0)
	합계	57(66.3)	11(12.8)	15(17.4)	3(3.50)	86(100.0)
경 력	5년 이하	9(11.1)		2(2.5)		11(13.6)
	6~10년	4(4.9)		1(1.2)		5(6.2)
	11~14년	12(14.8)	3(3.7)	2(2.5)		17(21.0)
	15년 이상	30(37.0)	7(8.6)	8(9.9)	3(3.7)	48(59.3)
	합계	55(67.9)	10(12.3)	13(16.0)	3(3.7)	81(100.0)

[표IV-33] 향토사 문제의 고입시험 반영 여부

단위: 명, (%)

문항 구분	적극 찬성 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 한다	합계
성별	남자	6(9.7)	49(79.0)	6(9.7)	1(1.6) 62(100.0)
	여자	5(20.0)	15(60.0)	5(20.0)	25(100.0)
	합계	11(12.6)	64(76.3)	11(12.6)	1(1.1) 87(100.0)
경력	5년 이하	3(3.7)	7(8.5)	1(1.2)	11(13.4)
	6~10년		4(4.9)	1(1.2)	5(6.1)
	11~14년	5(6.1)	8(9.8)	3(3.7)	1(1.2) 17(20.7)
	15년 이상	3(3.7)	41(50.0)	5(6.1)	49(59.8)
	합계	11(13.4)	60(73.2)	10(12.2)	1(1.2) 82(100.0)

[표IV-33] 은 향토사 문제를 고입 시험이나 면접 시험에 출제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교사들은 80% 정도로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실시하는 고입시험의 평가문항이나 면접시험에 향토사 문제를 출제한다면 향토사 학습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표IV-34]에서는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적극 찬성과 찬성을 합쳐 57%로 향토사에 대한 독립된 교육과정의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표IV-35]는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향토사학과 설치하는데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81.6%) 이에 찬성하고 있다. 성별이나 교직 경력에 따른 통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찬성이 80% 이상 된다는 점에서([표IV-17] 참고), 대학에서 향토사학과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여전히 아직 구비되지 않았다면 사범대학에서 향토사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사 교육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IV-34] 향토사 과목의 독립된 교육과정 편성 여부

단위: 명, (%)

문항 구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합계
성 별	남자	3(4.9)	31(50.8)	26(42.6)	1(1.6)	61(100.0)
	여자	4(16.7)	10(41.7)	10(41.7)		24(100.0)
	합계	7(8.2)	41(48.2)	36(42.4)	1(1.2)	85(100.0)
경 력	5년 이하	2(2.5)	5(6.3)	4(5.0)		11(13.8)
	6~10년		2(2.5)	3(3.8)		5(6.3)
	11~14년	4(5.0)	7(8.8)	4(5.0)	1(1.3)	16(20.0)
	15년 이상	1(1.3)	26(32.5)	21(26.3)		48(60.0)
	합계	7(8.8)	40(50.0)	32(40.0)	1(1.3)	80(100.0)

[표IV-35] 대학에 향토사학과를 설치하는 문제

단위: 명, (%)

문항 구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합계
성 별	남자	5(8.1)	48(77.4)	9(14.5)		62(100.0)
	여자	5(20.0)	13(52.0)	7(28.0)		25(100.0)
	합계	10(11.5)	61(70.1)	16(18.4)		87(100.0)
경 력	5년 이하	2(2.4)	7(8.5)	2(2.4)		11(13.4)
	6~10년		3(3.7)	2(2.4)		5(6.1)
	11~14년	6(7.3)	7(8.5)	4(4.9)		17(20.7)
	15년 이상	2(2.4)	40(48.8)	7(8.5)		49(59.8)
	합계	10(12.2)	57(69.5)	15(18.3)		82(100.0)

[표IV-36]은 수업 시간에 향토사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활용하지 않은 편이 70%가까이 된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표IV-28 참고] 이것은 [표IV-37]에서 향토사 자료의 제공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표IV-36] 수업시간에 향토사 자료의 활용 정도

단위: 명, (%)

구분		문항	매 시간 활용한다	자주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합계
성별	남자	1(1.6)	22(35.5)	36(58.1)	3(4.8)	62(100.0)	
	여자		5(20.0)	17(68.0)	3(12.0)	25(100.0)	
	합계	1(1.1)	27(31.0)	53(60.9)	6(6.9)	87(100.0)	
경력	5년 이하	2(2.4)	9(11.0)				11(13.4)
	6~10년	2(2.4)	3(3.7)				5(6.1)
	11~14년	8(9.8)	7(8.5)	2(2.4)			17(20.7)
	15년 이상	13(15.9)	32(39.0)	4(4.9)			49(59.8)
	합계	25(30.5)	51(62.2)	6(7.3)			82(100.0)

[표IV-37] 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 제작한 향토사 교육 자료의 보급 여부

단위: 명, (%)

구분		문항	많이 받아 보았다	받아 본 적이 있다	받아 본 적이 없다	합계
성별	남자	3(3.4)	37(42.5)	22(25.3)	62(71.3)	
	여자		13(14.9)	12(13.8)	25(28.7)	
	합계	3(3.4)	50(57.5)	34(39.1)	87(100.0)	
경력	5년 이하		2(2.4)	9(11.0)	11(13.4)	
	6~10년		3(3.7)	2(2.4)	5(6.1)	
	11~14년		12(14.6)	5(6.1)	17(20.7)	
	15년 이상	3(3.7)	29(35.4)	17(20.7)	49(59.8)	
	합계	3(3.7)	46(56.1)	33(40.2)	82(100.0)	

[표IV-38]은 향토사 학습에 대한 연수를 받을 의향을 물은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향토사 학습을 위한 연수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연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표IV-38] 향토사 학습에 관한 일반 연수 희망 여부

단위: 명, (%)

문항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합계
구분					
성별	남자	4(6.5)	55(88.7)	3(4.8)	62(100.0)
	여자	5(20.0)	19(76.0)	1(4.0)	24(28.2)
	합계	7(8.2)	74(85.1)	4(4.6)	85(100.0)
경력	5년 이하	2(2.4)	8(9.8)	1(1.2)	11(13.4)
	6~10년		4(4.9)	1(1.2)	5(6.1)
	11~14년	5(6.1)	12(14.6)		17(20.7)
	15년 이상	2(2.4)	45(54.9)	2(2.4)	49(59.8)
	합계	9(11.0)	69(84.1)	4(4.9)	82(100.0)

3. 학생과 교사간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교차 분석

앞의 1), 2)에서 학생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인식과 교사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학생과 교사간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조사하였다. 교사 학생간의 향토사 학습에 대한 인식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표IV-39]는 '향토문화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하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에서 학생들이 56%에 비해 교사들은 89.6%로 교사들이 향토문화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표IV-39]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명, (%)

문항 구분	매우 잘 알 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잘모른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합계
학생	4(2.4)	89(53.6)	68(41.0)	5(3.0)	166(100.0)
교사	7(8.0)	71(81.6)	9(10.3)		87(100.0)
합 계	11(4.3)	160(63.2)	77(30.4)	5(2.0)	253(100.0)

$$\chi^2 = 31.449 \quad df = 3 \quad *** p < .001$$

[표IV-40]은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관심이 없는 편이 70%에 달하는데, 교사들은 67.5%가 달해 관심을 갖는 편이 대부분이다. 많은 편이다.

[표IV-40]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 문항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조금 많은 편이다	관심이 없는 편이다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합계
학생	3(1.8)	43(25.9)	109(65.7)	11(6.6)	166(100.0)
교사	15(17.2)	61(70.1)	11(12.6)		87(100.0)
합 계	11(4.3)	160(63.2)	77(30.4)	5(2.0)	253(100.0)

$$\chi^2 = 85.851 \quad df = 3 \quad ***p < .001$$

[표IV-41]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식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23.5%, 조금 필요하다는 71.7%인데 비해 교사들은 매우 필요하다는 55.2%, 조금 필요하다는 43.7%로 교사와 학생 모두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교사가 더욱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IV-41]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 문항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합계
학생	39(23.5)	119(71.7)	7(4.0)	1(0.6)	166(100.0)
교사	48(55.2)	38(43.7)	1(1.1)		87(100.0)
합 계	87(34.4)	157(62.1)	8(3.2)	(0.4)	253(100.0)

$$\chi^2 = 26.097 \quad df = 3 \quad ***p < .001$$

[표IV-42]는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교사 학생간의 인식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학생들은 애향심, 역사적 사고력 함양, 인성교육,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순으로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들은 애향심, 역사적 사고력 함양,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인성 교육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표IV-42]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

단위: 명, (%)

문항 구분	애 향 심 함양	역사적 사 고력 함양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인성 교육	자기주도 적 학습능 력 신장	합계
학생	86(51.8)	55(33.1)	5(3.0)	15(9.0)	5(3.0)	166(100.0)
교사	41(47.1)	24(27.6)	7(8.0)	6(6.9)	9(10.3)	87(100.0)
합 계	127(50.2)	79(31.2)	12(4.7)	21(8.3)	14(5.5)	253(100.0)

$$\chi^2 = 9.723 \quad df = 4 \quad *p < .05$$

[표IV-43]은 수업 시간에서 활용하는 향토사 학습자료가 어떻게 제작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사 학생간의 응답을 알아 본 것이다. 이 조사에서 학습 자료는 거의 대부분이 교사에 위해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교사에 의해 과제로 부과된 향토사 자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19.3%)고 답한 데 비해,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3.5%). 이것은 학생과 교사간의 교차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표IV-43] 향토사 학습자료의 제작 유형

단위: 명, (%)

문항 구분	교사 으로 제작	교사와 학생 공동 제작	학 생 에 게 과제 부여	기타	합계
학생	111(66.9)	21(12.7)	32(19.3)	2(1.2)	168(100.0)
교사	57(67.1)	19(22.4)	3(3.5)	6(7.1)	85(100.0)
합 계	168(66.9)	40(15.9)	35(13.9)	5(3.2)	251(100.0)

$$\chi^2 = 19.363 \quad df = 3 \quad ***p < 0.01$$

[표IV-44]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 자료를 포함하여 멀티미디어의 활용한 수업을 원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들은 이에 대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유인물 자료 활용을 30% 이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겨우 6%만 원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간의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p < .001) 따라서 학습기자재의 확충과 교사 ICT 연수, 향토사 교육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IV-44]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향토사 학습 자료의 종류

단위: 명, (%)

문 항 학년	인 터 넷 자료	C D , VTR자료	OHP 자료	슬라이드	유인물 자료	기타	합계
학생	76(45.8)	60(36.1)	9(5.4)	5(3.0)	10(6.0)	6(3.6)	166(100.0)
교사	33(40.2)	6(7.3)	8(9.8)	3(3.7)	28(34.1)	4(4.9)	82(100.0)
합 계	109(44.0)	66(26.6)	17(6.8)	8(3.2)	38(15.3)	10(4.0)	248(100.0)

$$\chi^2 = 20.422 \quad df = 6 \quad *p < .05$$

[표IV-45]는 향토사 문제를 고입 시험이나 면접 시험에 출제하는 것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학생들의 응답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교사들은 80% 정도로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다. 두 변인간의 관련성 정도는 *** $p < .0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해서 강박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IV-45] 향토사 문제의 고입시험 반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 문항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적극 반대한다	합계
학생	20(12.0)	66(39.8)	54(32.5)	26(15.7)	166(100.0)
교사	11(12.6)	64(73.6)	11(12.6)	1(1.1)	87(100.0)
합 계	31(12.3)	130(51.4)	65(25.7)	27(10.7)	253(100.0)

$$\chi^2 = 20.422 \quad df = 6 \quad *p < .05$$

V. 향토사 학습의 개선 방안과 지도 방법

1. 향토사 학습의 개선 방안

그동안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소홀히 되어 왔다. 이러한 향토사 학습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사 학습이 역사시간에만 이루어지며, 향토사 교육이 역사교사들만 해야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향토사는 지역사회의 역사이며, 오랜 세월 속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인물, 종교, 풍속, 교통, 인구, 의식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향토사 학습의 어느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교사들은 모든 교과, 역사, 일반 사회, 지리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우리는 향토사 학습이 모든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향토사 학습을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향토사에 대한 학습 자료는 대부분 단편적인 책자가 많으며 인터넷 자료는 내용의 빈약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교사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향토사 교육 자료의 종류를 묻는 설문에 교사들은 인터넷 자료가 40.2%, 유인물 자료가 34.1%로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향토사 학습자료에 의해서 수업 받기를 원하는가?’라는 설문에 인터넷 자료가 45.8%, CD, VTR 자료가 36.1%로 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생동감 있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 향토사를 하나의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과정에 향토사 학습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으로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위한 노력은 5차 교육과정의 개편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된 이래, 개정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설문에 교사들의 경우에 56.4%, 학생들의 경우는 60.8의 찬성을 보이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시간을 향토사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토사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바꾸어야 한다. 광복 이후부터 70년대까지는 개인이 저술한 국사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70년대부터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버렸다. 중앙집중식의 국정교과서체제에서는 향토사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사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과서가 편찬되도록 하여야 하며 국사교과서를 지역별로 편찬하도록 하면 교과학습시간에 향토사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검정교과서로의 개편에 대하여 교사들의 경우 85.9%, 학생들의 경우 68%의 높은 찬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섯째, 향토사 학습 자료의 활용상의 문제점으로 입시위주의 학습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입시위주의 학습풍토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고입시험에 평가문항으로 출제하거나 면접시험에 출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토사 문제를 고입시험에 출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사들은 88.9%가 희망하므로 향토사 문제를 고입시험에 출제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에 향토사학과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레세스터대학(University of Leicester)에 향토사학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 향토사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향토사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이 없는 실정이다. 대학에 향토사학과의 설치 여부를 묻는 설문에 교사들은 81.6%, 학생들은 80.1%가 찬성을 하고 있다. 고입시험에 출제가 되고 대학에 향토사학과가 설치된다면 학교에서의 향토사학습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현장 체험 위주의 답사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를 알아보았더니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하여가 42.2%,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가 25.3%, 그 외 대중매체를 통하여(12.7%), 부모나 지역 주민을 통하여(10.2%) 계기교육 시간을 통하여(9.0%), 기타(0.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에게 향토사 교육을 주로 어느 시간에 지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하여가 6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실시하면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체험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답사 후의 느낀 감정은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38.6%),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27.7%)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향토문화재에 당국의 관리가 소홀했음을 알 수 있다.

여덟째, 교사들에게 향토사 교육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향토사 학습은 현장 체험위주의 학습이 중요하며, 현장 체험 위주의 학습이 성공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사전 조사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체험 학습은 교사들의 현장 지도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향토사학습을 위한 답사활동의 방법에 관한 설문에,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현장답사하기(51.8%),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생들 스스로 답사하기(26.5%),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현장 답사하기(20.5%), 기타(1.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의 경우는 선생님과 함께 현장답사하기(66.3%),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생들 스스로 답사하기(17.45%),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현장 답사하기(12.8%), 기타(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들에게 ‘향토사 학습을 위한 일반연수를 실시한다면?’이라는 설문에 93.3%의 교사들이 연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한 연수가 필요하며 지역의 대학교, 박물관 등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향토사 자료의 지도 방법

(1)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역사 학습 자료로서 개발한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와 다른 하나는 교과외의 활동을 통한 지도가 있다. 교과 활동을 통한 지도 방법에는 분산적 접근 방법과 주제적 접근 방법이 있다.³⁸⁾

분산적 접근 방법이란 연간 진도 계획에 따라 통사 학습 과정에서 본시 학습내용과 관련이 있는 향토사 자료가 있으면 교재와 관련하여 활용하고 계속 본시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시수업과정의 필요에 따라 향토사 자료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 심화시킬 수 있다. 즉, 역사 학습의 이해를 위해 그리고 국가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어떤 발전의 실례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향토사 학습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교사가 흔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고 전통적인 종래의 역사학습의 틀 속에서 무난히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으며, 향토사 학습이 지니는 교육적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는 어렵다.

주제적 접근 방법(단원 접근 방법)은 학습내용을 선정할 때 향토사의 주제를 하나의 독립적인 단원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1~3시간 정도 학습할 수 있으며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주제적 접근 방법은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적절한 주제를 선택해야 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향토자료의 수집에 교사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되지만 향토사 학습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적 접근 방법보다는 주제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 방법을 역사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업 절차와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적 접근 방법을 위한 수업 절차와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38) 高孝淑. 鄉土史學習의 內容組織과 學習方法.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p 11~12

(가) 향토사 교재의 지도 절차

① 향토사 교재 단원의 설정(제1단계)

향토사 교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먼저 향토사 자료의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향토사 교재 단원을 설정하고 그 단원을 지도하기 위한 학습 자료를 정선하여야 한다.

② 향토사 교재 단원에 대한 진단 검사 실시(제2단계)

선정된 향토사 교재 단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사는 그 교재 단원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도와 흥미, 기존 학습도, 자료 처리 능력, 학습환경, 학습욕구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학습자의 실태를 파악한다. 이때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 대해서도 진단하되 기본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진단 검사 결과는 지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③ 지도 계획의 수립(제3단계)

진단 검사가 끝나면 그 결과의 바탕 위에서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 과제를 분석하여 학습의 발전 계통을 밝히고, 기본적 사항과 기초적 사항을 밝히며 학습자료의 수집 정리, 개발과 활용 계획, 지도상의 유의점, 학습 형태, 학습 방법, 시간 배당, 지도상의 유의점, 평가 등에 이르기 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④ 지도 과정(제4단계)

지도 계획이 수립되면 지도 계획에 따라 수업을 전개해 간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에게 학습 목표와 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 향토사 교재 단원의 학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분석·비판·해석·종합하여 발표 토의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민족사 속에서 향토사와 다른 점,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정태적

39)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315~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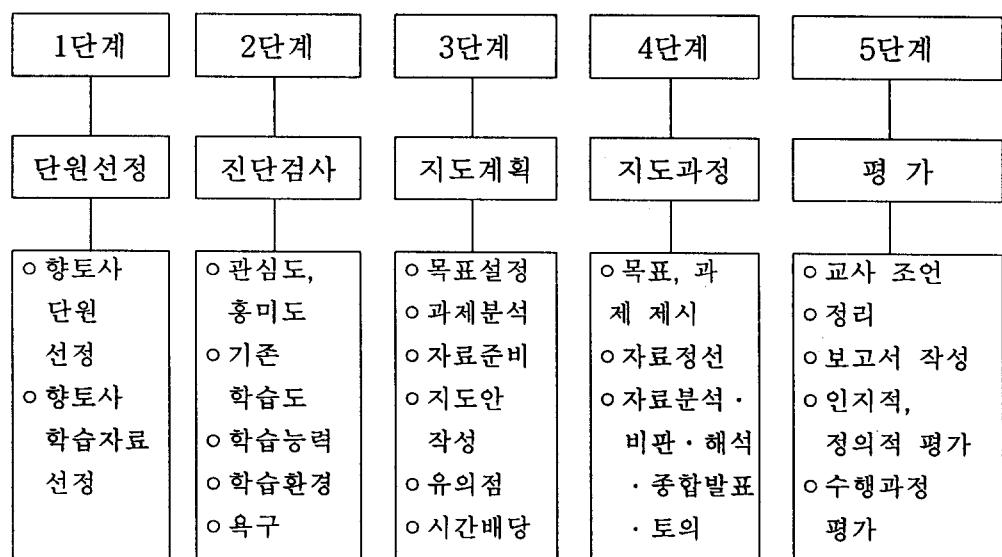
파악에 그치지 말고 동태적 파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가급적 현장 학습(답사, 견학, 조사)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제5단계))

종합발표·토의가 끝나면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여 보고서와 연대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보고서의 체제, 서술 내용 등에 대한 작성 요령을 설명하여 주고 간결 명료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보고서와 연대표작성이 끝나면 이를 회수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훌륭한 보고서는 교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른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그 후 학습 내용의 목표 도달을 평가한다. 평가할 때는 진단검사의 문항과 학습 후 필요한 문항을 보완하여 함께 평가를 하되 전후비교법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변화상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향토사 교재의 지도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향토사 교재 단원의 본시 학습 모형

향토사 교재 단원을 전개해 갈 때 중요한 것은 본시 학습 모형이다. 본시 학습 모형을 구체적으로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과정	시간	자료명	유의점
문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주제·목표·과제 제시 ○ 문제파악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사 교재 단원의 개요와 수업 전개 방법 설명 ○ 주제·목표·과제를 분명히 제시 ○ 목표, 과제(문제)파악
자료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수집 및 정선 ○ 문제해결 방안 제시 및 해결 방안 모색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사가 자료를 제공하기도 함 ○ 최적 자료를 정선 ○ 문제해결 방안 모색
문제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분석·비판 ○ 자료해석·종합 ○ 발표·토의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선한 자료를 분석·비판·해석·종합하여 과제순으로 정리함 ○ 해석·종합한 자료를 발표·토의함 ○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조언 ○ 정리 ○ 보고서 작성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을 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함 ○ 보고서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적, 정의적 영역 ○ 일반화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검사 문항과 학습 후 필요한 문항을 보완하여 동시 평가 ○ 보고서 평가 ○ 전후비교법을 고찰하여 결과 고찰

(2) 교과외 활동을 통한 지도

① 일상교육을 통한 지도

학교의 일상교육 중 향토 문화재나 역사적 인물, 연혁 등을 연간 계획을 세워 주기적으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시회·집회·방송교육·향토관 운영 등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② 행사교육을 통한 지도

소풍, 수학 여행시에 향토의 유적지나 역사적 인물의 생가, 묘비 등을 답사(견학)한다든가, 탁본 전시회, 민속놀이, 문화재 사진 전시회, 내 고장 자랑 글짓기 대회, 지역사회의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③ 특별 활동이나 자유 재량 시간을 통한 지도

역사반이나 향토문화 연구반 등을 조직하여 향토의 문화재나 역사적인 인물 등을 문헌을 통하여 연구하거나 현장답사나 견학을 통하여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교과외 활동을 통한 지도는 교실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며 향토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향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향토사 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향토사 자료의 교육적 기능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역사 학습 현장에 있어서는 향토사 교재를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향토사 자료를 지도하는 데 따른 유의점에 대해서 이원순,⁴⁰⁾ 김정희⁴¹⁾, 등이 나름대로 제시하였으

40) 이원순, 이정인. 역사교육. 정음문화사. 1985. p 174~175

41) 金貞熹. 國史學習을 爲한 鄉土資料活用方案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3. p 40

며 송춘영은⁴²⁾ 이것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향토사 교재 단원의 선정면에서

- ① 향토사 교재 단원을 선정할 때는 자료가 많은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주제는 교사중심의 수업에 빠지기 쉽다.
- ②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의 공동노력으로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향토사 교재 단원을 선정할 때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향토사 교재 단원을 선정할 때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주제를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 지도 계획의 수립면에서

- ① 향토사 교재 단원이 선정되면 주제에 대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그 바탕 위에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도 계획을 세울 때는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에 맞는 계획을 세우되 학습목표와 기본적 사항과 기초적인 사항을 밝히고 지도 자료와 절차에 따른 시간 배당과 활동상, 인접 諸과학과도 관련 시켜야 한다.
- ③ 연간 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과제를 분석하여 현장 답사나 현장 견학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며 연간 4~6회 정도 지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1회에 소요되는 시간 배당은 2~3시간 정도 소요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 지도 과정면에서

- ① 민족사의 흐름속에서 향토사와 민족사를 관련시켜 향토사가 민족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시키고 향토사가 갖는 특수성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현재적 관점에서 향토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면서 조상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p 321~323

- ③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자기 향토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으로 배타적이고 편협한 감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타 지역과도 관련시켜 靜態的 학습을 지양하고 動態的 학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단편적인 사실이나 자료의 이해에 그쳐서는 안되며 향토사의 변천 발전 과정을 통하여 향토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반드시 현장학습(답사, 견학, 조사)을 병행하여 지도하도록 하고 현장 학습은 사전 지도, 답사 과정의 지도, 답사 후의 지도 등 3단계로 나누어 지도하여야 한다.
- ⑦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교사는 지도 내용에 대해서 교재 연구를 충분히 하여 교재에 정통하도록 하되 교사 중심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는 역사학·지리학·인류학·고고학·사회학 등 인접 諸 과학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 자료 활용면에서

- ① 향토사 교재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역사가에 의해서 가치성과 신빙성이 인정된 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② 향토사 자료는 학습자의 신변에 가까운 자료를 활용하되 기본적인 자료로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능력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향토사 자료를 활용할 때는 향토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문헌자료인 경우는 번역물이나 전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비서술적 자료와 보조 과학적 자료, 자원 인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자료를 활용할 때는 교사 중심의 제시나 전달, 단순한 자료의 암기식 방법을 지양하고 역사적 자료 처리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산만한 이용으로 귀중한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 평가면에서

- ① 향토사 교재를 지도한 후 평가를 할 때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교사는 보고서 작성 요령을 제시하고 자유로운 보고서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를 할 때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변화상도 평가하여 전후비교법을 사용하여 학습자의 변화상을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평가 방법은 객관식 방법 외에 논술식 방법(자유 기술법·작문법)·작품분석법·관찰법·면접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평가는 수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제 자료와 협동성·참여도 등에 관한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의 이해를 위한 향토사 학습이 필요하다.

1980년대에 와서 향토사 연구자들이 다수 등장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교육과정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향토사 학습을 위한 자료는 부족한 편이며 획일적인 교과서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향토사 교육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기되는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과 교육적 기능을 밝히고, 제주 지역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인식도를 교사·학생들의 설문을 통해서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과적인 향토사 학습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향토사 학습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설문을 통해서 보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을 대단히 느끼고 있었다. 향토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사들의 경우가 학생들보다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향토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는 못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향토사 학습의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교사들과 학생들 모두 애향심을 함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향토사 학습의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또는 중학교 수준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토사에 대한 학습이 모든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까지 향토의 문화재에 대해서 주로 역사 시간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향토의 문화재에 대하여 모든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향토사가 그 지방의 오랜

역사, 문화, 생활, 풍속, 인물, 의식 등의 총체라고 한다면 역사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향토사를 고입시험에 출제를 하는 방안과 대학에 향토사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토사 학습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소홀히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로 시행하는 고입시험의 평가문제나 면접시험으로 출제를 하고 대학에 향토사 학과를 설치한다면 입시로 인한 중압감을 줄일 수 있어서 향토사 학습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향토의 유래와 발전 과정 및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향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터넷 자료나 CD, VTR 자료 등에 의한 수업을 원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비교적 인터넷 자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인물 자료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사 자료가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향심을 키우고 지역사회를 바로 알 수 있게 하며 역사수업에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가진다. 향토사 학습자료는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자료제작에 따른 교사들의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한 자료의 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 향토사 자료의 개발을 공모하여 일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교사들을 위한 연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교과 수업 시간보다는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었으며, 체험활동을 위한 답사활동의 방법으로는 친구나 부모님보다는 교사들과 함께 답사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향토 문화재 체험현장에서 교사들의 지도능력 배양을 위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향토사

에 대한 연수활동의 개설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향토사 학습의 방법으로는 분산적 접근 방법과 주제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향토사 학습이 갖는 특성상 주제적 접근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향토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시간을 향토사학습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향토사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체제에서 검인정교과서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향토사 학습을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획일된 국정교과서보다는 각 지역마다 고유의 향토사를 수록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서의 편찬에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봉룡. 지방사 연구와 역사교육. 윤세철교수 정년기념역사학논총간행위원회. 200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신인철. 프랑스의 향토사 연구. 향토사연구 제6집. 1994.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삼지사. 1998.

이승진. 日本의 鄉土研究 小史. 향토사연구 제6집. 1994.

이원순. 사회과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이원순 외. 역사과 교육. 능력개발. 1977.

이원순 외 2인.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3.

이원순, 이정인. 역사교육. 정음문화사. 1985

차경수. 현대의 사회과 교육. 학문사. 2000.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제7차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1998년도 교육부 위탁과제
81160 - 43의 답신 보고서.

<논 문>

고영호. 아동의 흥미에 기초한 향토사 수업 모형의 구안 및 적용. 한국교
원대 석사학위논문. 1997.

- 고효숙. 향토사 학습의 내용조직과 학습 방법.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양규. 충주지역의 향토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충북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연성. 향토사의 연구사적 검토와 향토사 교육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정수. 초등학교 향토사 학습의 실태 분석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정훈.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한국교원대 석사 학위 논문. 1994.
- 김정희. 국사학습을 위한 향토자료 활용방안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신성기. 국사교육에서 주제접근에 의한 향토사 학습지도 방안.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제실. 국사수업에 있어서 향토사 자료의 활용방안.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1995.
- 임효명. 중학교에서의 향토사학습 조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996.
- 정승혜. 중학교 국사교과에서의 향토사 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 조태형.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2.
- 차행천. 역사유적을 통한 중학교 지방사교육. 순천대 석사학위 논문. 2000.

부록1) 설문지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생들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고 틀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본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02년 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한태국

- 1) 학교별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 공학
- 2) 학년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 3) 거주지별 : ① 대정읍 지역권 ② 안덕면 지역권
 ③ 무릉·고산권 ④ 기타권
- 4) 향토 유적지 답사 경험별 : ① 있음 ② 없음
- 5) 보호자 직업별 : ① 농업 ② 수산업 ③ 상업 ④ 회사원
 ⑤ 공무원 ⑥ 건축업 ⑦ 기타

※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당항목에 ○ 표를 해 주십시오.

1) 학생은 향토의 문화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알지 못한다

2) 학생은 평소에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 ② 조금 많은 편이다
-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3) 학생은 평소에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필요 없다
- ④ 전혀 필요 없다

4) 학생은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시킬 수 있다
- ②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③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④ 인성 교육의 좋은 교육장이므로
- 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5) 학생이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 ① 유치원
- 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③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6) 향토사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 현행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에서 점인 정교과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의 생각은?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7) 학생은 향토사 학습 시간을 통해서 어떤 점을 알고 싶습니까?

- ①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 ②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 ③ 향토의 유래와 발전과정
- ④ 향토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책
- ⑤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8) 학생이 생각하는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은?

- ① 역사수업에 흥미를 북돋울 수 있으므로
- ② 지역 사회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 ③ 조상의 업적을 알 수 있으므로
- ④ 구체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 ⑤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9) 학생이 수업시간에 활용했던 학습 자료는 어떻게 제작된 자료입니까?

- ①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제공한 자료이다
- ②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 ③ 학생들이 과제로 제작한 자료였다
- ④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0) 학생이 생각하는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은?

- ① 국정교과서 체제
- ② 입시 위주의 교육
- ③ 수업시간의 부족
- ④ 향토사 자료의 부족
- ⑤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1) 학생이 수업시간에 어떤 종류의 향토사 학습 자료에 의해서 수업 받기를 원합니까?

- ① 인터넷 자료
- ② CD, VTR자료
- ③ OHP자료
- ④ 슬라이드
- ⑤ 유인물 자료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2) 학생이 향토의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 ①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통하여
- ② 계기교육 시간을 통하여
- ③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 ④ 대중 매체를 통하여

⑤ 부모나 지역 주민을 통하여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3) 학생은 향토의 문화재를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① 역사

② 일반사회

③ 지리

④ 윤리

⑤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4) 학생은 향토사 학습을 위한 답사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원하십니까?

①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하기

②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현장 답사하기

③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생들 스스로 답사하기

④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5) 학생은 향토사 문제를 고입시험에 평가 문항으로 출제하거나 면접 시험에 출제한다면?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16) 학생은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한다면?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17) 학생은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향토사학과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18) 학생이 향토 문화재를 답사하고 느낀 감정은?

- ① 향토애를 느낄 수 있다
- ② 앞으로 자주 답사하여야 하겠다
- ③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 ④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 고장을 빛내겠다
- ⑤ 별로 의미가 없었다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학생들의 향토사 학습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맞고 틀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응답 내용은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귀하의 솔직한 응답이 본 연구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02년 월

팀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한태국

- 1) 성별 : ① 남, ② 여
- 2) 연령별 : ① 30세 이하,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0세이상
- 3) 경력별 :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4년, ④ 15년 이상
- 4) 전공별 : ① 역사 ② 일반사회 ③ 지리
 ④ 윤리 ⑤ 기타
- 5) 출신대학별 : ① 제주도내 ② 서울·경기 ③ 충청권
 ④ 전라권 ⑤ 강원·경상권
- 6) 근무지별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남제주군 ④ 북제주군

*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해당항목에 ○표를 해 주십시오.

1)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향토의 문화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조금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알지 못한다

2)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다?

- ① 관심이 매우 많은 편이다
- ② 조금 많은 편이다
- ③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는 편이다

3)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학습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조금 필요하다
- ③ 필요 없다
- ④ 전혀 필요 없다

4)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함양시킬 수 있다
- ②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
- ③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④ 인성 교육의 좋은 교육장이므로
- 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5)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는 향토사 학습이 필요한 시기는?

- ① 유치원
- 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 ③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 ④ 중학교
- ⑤ 고등학교

6)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학습의 강화를 위해서 현행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7) 선생님께서 향토사 학습 시간에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 ① 향토의 자랑스런 문화재
- ② 향토의 발전에 힘써 온 조상의 노력
- ③ 향토의 유래와 발전과정
- ④ 향토의 문제점 발견 및 개선책
- ⑤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8)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토사 교재의 필요성은?

- ① 역사수업에 흥미를 북돋울 수 있으므로
- ② 지역 사회를 바로 알 수 있으므로
- ③ 조상의 업적을 알 수 있으므로
- ④ 구체적인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⑤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9)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활용할 학습 자료를 어떻게 제작하십니까?

- ① 교사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 ② 교사와 학생이 공동으로 제작한다
- ③ 학생들에게 제작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한다
- ④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0)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토사 자료 활용상의 문제점은?

- ① 국정교과서 체제
- ② 입시 위주의 교육
- ③ 수업시간의 부족
- ④ 향토사 자료의 부족
- ⑤ 교사와 학생의 관심 부족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1)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향토사 학습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 ① 인터넷 자료
- ② CD, VTR자료
- ③ OHP자료
- ④ 슬라이드
- ⑤ 유인물 자료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2) 선생님께서는 수업시간에 향토사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 ① 매 시간 활용한다
- ② 자주 활용한다
- ③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13) 선생님께서는 향토의 문화재에 대한 학습은 어느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역사
- ② 일반사회
- ③ 지리
- ④ 윤리
- ⑤ 모든 교과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4)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학습을 위한 답사활동을 한다면 어떠한 방법을 원하십니까?

- ① 선생님과 함께 현장 답사하기
- ②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현장 답사하기
- ③ 과제물을 제출하여 학생들 스스로 답사하기
- ④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5)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문제를 고입시험에 평가 문항으로 출제하거나 면접 시험에 출제한다면?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16) 선생님께서는 향토사를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④ 적극 반대한다

17)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에 향토사학과를 설치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18)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교육은 어느 시간에 지도하십니까?

- ① 교과 수업 시간
- ② 특별 활동 시간
- ③ 계기교육 시간
- ④ 청소년단체 활동 시간
- ⑤ 수학여행이나 소풍시
- ⑥ 기타(적어 주십시오) _____

19) 선생님께서는 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향토사 교육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많이 받아 보았다
- ② 받아 본 적이 있다.
- ③ 받아 본 적이 없다

20) 선생님께서는 향토사 학습에 관한 일반 연수를 실시한다면?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찬성한다
- ③ 반대한다
- ④ 적극 반대한다

부록2)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학생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삼성혈	1학년	8(4.8)	28(16.9)	12(7.2)	10(6.0)	58(34.9)
	2학년	11(6.6)	31(18.7)	12(7.2)	2(1.2)	56(33.7)
	3학년	4(2.4)	45(27.1)	2(1.2)	1(0.6)	52(31.3)
	합 계	23(13.9)	104(62.7)	26(15.7)	13(7.8)	166(100.0)
관덕정	1학년	6(3.6)	26(15.7)	19(11.4)	7(4.2)	58(34.9)
	2학년	4(2.4)	27(16.3)	22(13.3)	3(1.8)	56(33.7)
	3학년	1(0.6)	33(19.9)	16(9.6)	2(1.2)	52(31.3)
	합 계	11(6.6)	86(51.8)	57(34.3)	12(7.2)	166(100.0)
제주목 관아지	1학년	2(1.2)	4(2.4)	29(17.5)	23(13.9)	58(34.9)
	2학년		6(3.6)	37(22.3)	13(7.8)	56(33.7)
	3학년	1(0.6)	8(4.8)	33(19.9)	10(6.0)	52(31.3)
	합 계	3(1.8)	18(10.8)	99(59.6)	46(27.7)	166(100.0)
불탑사 5층 석탑	1학년	3(1.8)	10(6.8)	31(18.7)	14(8.4)	58(34.9)
	2학년		25(15.1)	22(13.3)	9(5.4)	56(33.7)
	3학년		16(9.6)	31(18.7)	5(3.0)	52(31.3)
	합 계	3(1.8)	51(30.7)	48(50.6)	28(16.9)	166(100.0)
산방굴 사	1학년	16(9.6)	24(14.5)	14(8.4)	4(6.4)	58(34.9)
	2학년	17(10.2)	30(18.1)	8(4.8)	1(0.6)	56(33.7)
	3학년	12(7.2)	36(21.7)	4(2.4)		52(31.3)
	합 계	45(27.1)	90(54.2)	26(15.7)	5(3.0)	166(100.0)
하멜 표류 유적지	1학년	6(3.6)	11(6.6)	32(19.3)	9(5.4)	58(34.9)
	2학년	4(2.4)	9(5.4)	36(21.7)	7(4.2)	56(33.7)
	3학년	6(3.6)	10(6.1)	31(18.6)	5(3.0)	52(31.3)
	합 계	16(9.6)	30(18.1)	99(59.6)	21(12.7)	166(100.0)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항파두리 유적지	1학년	5(3.0)	21(12.7)	20(12.0)	12(7.2)	58(34.9)	
	2학년	5(3.0)	19(11.4)	25(15.1)	7(4.2)	56(33.7)	
	3학년	5(3.0)	18(10.8)	22(13.3)	7(4.2)	52(31.3)	
	합 계	15(9.0)	58(34.9)	67(40.4)	26(15.7)	166(100.0)	
빌레못 동굴 유적	1학년	4(2.4)	7(4.2)	30(18.1)	17(10.2)	58(34.9)	
	2학년	2(1.2)	7(4.2)	33(19.9)	14(8.4)	56(33.7)	
	3학년	1(0.6)	21(12.7)	23(13.9)	7(4.2)	52(31.3)	
	합 계	7(4.2)	35(21.1)	86(51.8)	38(22.9)	166(100.0)	
꽈자리 조개무지	1학년	2(1.2)	5(3.0)	34(20.5)	17(10.2)	58(34.9)	
	2학년	1(0.6)	3(1.8)	37(22.3)	15(9.0)	56(33.7)	
	3학년		4(2.4)	34(20.5)	14(8.4)	52(31.3)	
	합 계	3(1.8)	12(7.2)	105(63.3)	46(27.7)	166(100.0)	
법화사지 유적	1학년	2(1.2)	6(3.6)	35(21.1)	15(9.0)	58(34.9)	
	2학년	1(0.6)	3(1.8)	41(24.7)	11(6.6)	56(33.7)	
	3학년	1(0.6)	6(3.6)	35(21.1)	10(6.0)	52(31.3)	
	합 계	4(2.4)	15(9.0)	111(66.9)	36(21.7)	166(100.0)	
존자암지 유적	1학년	1(0.6)	5(3.0)	34(20.5)	18(10.8)	58(34.9)	
	2학년	1(0.6)	3(1.8)	38(22.9)	14(8.4)	56(33.7)	
	3학년		1(0.6)	38(22.9)	13(7.8)	52(31.3)	
	합 계	2(1.2)	9(5.4)	110(66.3)	45(27.1)	166(100.0)	
제주향교	1학년	10(6.0)	26(15.7)	14(8.4)	8(4.8)	58(34.9)	
	2학년	6(3.6)	33(19.9)	13(7.8)	4(2.4)	56(33.7)	
	3학년	1(0.6)	32(19.3)	17(10.2)	2(1.2)	52(31.3)	
	합 계	17(10.2)	91(54.8)	44(26.5)	14(8.4)	166(100.0)	
오현단유적	1학년	2(1.2)	5(3.0)	31(18.7)	20(12.0)	58(34.9)	
	2학년	2(1.2)	5(3.0)	35(21.1)	14(8.4)	56(33.7)	
	3학년		3(1.8)	38(22.9)	11(6.6)	52(31.3)	
	합 계	4(2.4)	13(7.8)	104(62.7)	45(27.1)	166(100.0)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혼인자 유적	1학년	3(1.8)	8(4.8)	29(17.5)	18(10.8)	58(34.9)
	2학년	2(1.2)	7(4.2)	33(19.9)	14(8.4)	56(33.7)
	3학년		5(3.0)	35(21.1)	12(7.2)	52(31.3)
	합 계	5(3.0)	20(12.0)	97(58.4)	44(26.5)	166(100.0)
별방진 유적	1학년	1(0.6)	3(1.8)	30(18.1)	24(14.5)	58(34.9)
	2학년	1(0.6)	2(1.2)	35(21.1)	18(10.8)	56(33.7)
	3학년		1(0.6)	40(24.1)	11(6.6)	52(31.3)
	합 계	2(1.2)	6(3.6)	105(63.3)	53(31.9)	166(100.0)
정의향 교 유적	1학년	1(0.6)	3(1.8)	33(19.9)	21(12.7)	58(34.9)
	2학년	2(1.2)	1(0.6)	36(21.7)	17(10.2)	56(33.7)
	3학년		2(1.2)	38(22.9)	12(7.2)	52(31.3)
	합 계	3(1.8)	6(3.6)	107(64.5)	50(30.1)	166(100.0)
일관현 유적	1학년	2(1.2)	1(0.6)	30(18.1)	25(15.1)	58(34.9)
	2학년	1(0.6)	2(1.2)	34(20.5)	19(11.4)	56(33.7)
	3학년			41(24.7)	11(6.6)	52(31.3)
	합 계	3(1.8)	3(1.8)	105(63.3)	55(33.1)	166(100.0)
추사 적거 유적지	1학년	23(13.9)	23(13.9)	5(3.0)	7(4.2)	58(34.9)
	2학년	21(12.7)	30(18.1)	4(2.4)	1(0.6)	56(33.7)
	3학년	20(12.0)	30(18.1)	2(1.2)		52(31.3)
	합 계	64(38.6)	83(50.0)	11(6.6)	8(4.8)	166(100.0)
알드로 비행장	1학년	8(4.8)	21(12.7)	17(10.2)	12(7.2)	58(34.9)
	2학년	10(6.0)	23(13.9)	18(10.8)	5(3.0)	56(33.7)
	3학년	13(7.8)	37(21.3)	2(1.2)		52(31.3)
	합 계	31(18.7)	81(48.8)	37(22.3)	17(10.2)	166(100.0)
대정고 정문 앞 고구마 저장고	1학년	2(1.2)	8(4.8)	23(13.9)	25(15.1)	58(34.9)
	2학년	14(8.4)	21(12.7)	13(7.8)	8(4.8)	56(33.7)
	3학년	15(9.0)	21(12.7)	11(6.6)	5(3.0)	52(31.3)
	합 계	31(18.7)	50(30.1)	47(28.3)	38(22.9)	166(100.0)

선생님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삼성혈	남자	33(37.9)	29(33.3)				62(71.3)
	여자	12(13.8)	13(14.9)				25(28.7)
	합 계	45(51.7)	42(48.3)				87(100.0)
관덕정	남자	25(28.7)	37(42.5)				62(71.3)
	여자	12(13.8)	13(14.9)				25(28.7)
	합 계	37(42.5)	50(57.5)				87(100.0)
제주목 관아지	남자	20(23.0)	38(43.7)	4(4.6)			62(71.3)
	여자	6(6.9)	18(20.7)	1(1.1)			25(28.7)
	합 계	26(29.9)	56(64.4)	5(5.7)			87(100.0)
불탑사 5층 석탑	남자	13(14.9)	33(37.9)	16(18.4)			62(71.3)
	여자	1(1.1)	17(19.5)	6(6.9)	1(1.1)		25(28.3)
	합 계	14(16.1)	50(57.5)	22(25.3)	1(1.1)		87(100.0)
산방굴사	남자	23(26.4)	36(41.4)	3(3.4)			62(71.3)
	여자	11(12.6)	13(14.9)	1(1.1)			25(28.7)
	합 계	34(39.1)	49(56.3)	4(4.6)			87(100.0)
하멜 표류 유적지	남자	25(28.7)	37(42.5)				62(71.3)
	여자	7(8.0)	17(19.5)	1(1.1)			25(28.7)
	합 계	32(36.8)	54(62.1)	1(1.1)			87(100.0)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항파두리 유적지	남자	28(32.2)	34(39.1)			62(71.3)
	여자	12(13.8)	12(13.8)	1(1.1)		25(28.7)
	합 계	40(46.0)	46(52.9)	1(1.1)		87(100.0)
빌레못 동굴 유적	남자	14(16.1)	45(51.7)	3(3.4)		62(71.3)
	여자	4(4.6)	16(18.4)	5(5.7)		25(28.7)
	합 계	18(20.7)	61(70.1)	8(9.2)		87(100.0)
곽지리 조개무지	남자	9(10.3)	38(43.7)	14(16.1)	1(1.1)	62(72.1)
	여자	3(3.4)	13(14.9)	8(9.2)	1(1.1)	25(28.7)
	합 계	12(13.8)	51(58.6)	22(25.3)	2(2.2)	87(100.0)
법화사지 유적	남자	11(12.9)	37(43.5)	14(16.5)		62(72.9)
	여자	2(2.4)	13(15.3)	6(7.1)	2(2.4)	23(27.9)
	합 계	13(15.4)	50(58.8)	20(23.5)	2(2.4)	85(100.0)
존자암지 유적	남자	16(18.6)	41(47.7)	5(5.8)		62(72.1)
	여자	6(7.0)	17(19.8)	1(1.2)		24(27.9)
	합 계	22(25.6)	58(67.4)	6(7.0)		86(100.0)
제주향교	남자	13(15.1)	46(53.5)	3(3.5)		62(72.1)
	여자	7(8.1)	15(17.4)	2(2.3)		24(27.9)
	합 계	20(23.3)	61(70.9)	5(5.8)		86(100.0)
오현단 유적	남자	17(19.8)	44(51.2)	1(1.2)		62(72.1)
	여자	5(5.8)	16(18.6)	3(3.5)		24(27.9)
	합 계	22(25.6)	60(69.8)	4(4.7)		86(100.0)

단위: 명, (%)

문화재		인식도	잘 알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합계
Honinji Yugi	남자	9(10.5)	36(41.9)	17(19.8)			62(72.1)
	여자	3(3.5)	6(7.0)	15(17.4)			24(27.9)
	합 계	12(14.0)	42(48.8)	32(37.6)			86(100.0)
Beopfangjin Yugi	남자	19(22.1)	40(46.5)	3(3.5)			62(72.1)
	여자	4(4.7)	14(16.4)	6(7.0)			24(27.9)
	합 계	23(26.7)	54(62.8)	9(10.5)			86(100.0)
Jeongyehang Gyo Yugi	남자	5(5.8)	26(30.2)	30(34.9)	1(1.2)		62(72.1)
	여자	1(1.2)	6(7.0)	16(18.6)	1(1.2)		24(27.9)
	합 계	6(7.0)	32(37.2)	46(53.5)	2(2.3)		86(100.0)
Ilphwanhyeon Yugi	남자	29(33.7)	31(36.0)	2(2.3)			62(72.1)
	여자	8(9.3)	15(17.4)	1(1.2)			24(27.9)
	합 계	37(43.0)	46(53.5)	3(3.5)			86(100.0)
Chusachikger Yugi	남자	29(33.7)	31(36.0)	2(2.3)			62(72.1)
	여자	8(9.3)	15(17.4)	1(1.2)			24(27.9)
	합 계	37(43.0)	46(53.5)	3(3.5)			86(100.0)
Aldro Bihyangjang	남자	22(25.6)	23(26.7)	16(18.6)	1(1.2)		62(72.1)
	여자	5(5.8)	13(15.1)	6(7.0)			24(27.9)
	합 계	27(31.4)	36(41.9)	22(25.6)	1(1.2)		86(100.0)
Daejeonggo Jeongmun Agyo Goguk Ma Jezhanggo	남자	24(27.9)	23(26.7)	14(16.3)	1(1.2)		62(72.1)
	여자	5(5.8)	1(11.6)	9(10.5)			24(27.9)
	합 계	29(33.7)	33(38.4)	23(26.7)	1(1.2)		86(100.0)

부록3) 향토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분석

교사와 학생들의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해 보면, 삼성혈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100%, 학생들의 경우 76.6%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삼성혈이 탐라 건국의 신화와 관계가 있고, 고(高), 양(梁), 부(夫) 3성의 시조가 탄생한 곳으로 제주의 상징적인 향토 유적지로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즐겨 찾는 명소이다. 또한 고, 양, 부, 3성의 문중에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혈과 관련하여 고, 양, 부 3신인(神人)이 벽랑국의 3공주를 맞이하여 혼례를 거행하였다는 혼인지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62.8%, 학생들의 경우 15.0%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비교적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혼인지 유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성산포에서도 외진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관광객들에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관덕정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100%, 학생들의 경우 58.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복원 중에 있는 제주목관아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94.3%, 학생들의 경우 12.6%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서로 대조적이다. 이것은 관덕정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목조건축물로서 광복 후에는 한때 도청 청사로 활용하는 등 조선시대 이래로 제주도민의 숨결이 서린 곳이며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비교적 인식도가 좋으나, 제주목관아에 대해서는 현재 복원 중이여서 학생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인식도가 매우 낮은 반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으로 생각된다.

불탑사 5층 석탑(보물 1187호. 1993년)은 관덕정(보물 322호. 1963년 지정)과 더불어 제주도에서는 2개 밖에 없는 국보급의 문화재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경우 32.5%, 교사들의 경우 73.6%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다. 이것은 불탑사 5층 석탑이 제주도내에 있는 유일의 고려시대 석탑이고, 현무암으로 조성된 독특한 석탑이지만 1993년에 야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되어 관덕정의 경우 1963년에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된 것에 비하여 알려진 시기가 오래지 않았으며, 위치가 관덕정의 경우는 제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지만 불탑사 5층탑의 경우는 제주시 외곽 원당봉 기슭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산방굴사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81.3%가, 교사들은 95.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으나, 같은 장소에 있는 하멜표류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은 98.9%, 학생들의 경우 27.7%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다. 이것은 산방굴사는 경치가 뛰어나 관광지로서 유명하지만, 하멜표류 유적인 경우는 역사적으로는 더욱 중요한 유적이지만 유명 관광 코스가 아니어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빌레못 동굴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90.8%, 학생들의 경우에 25.3%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다. 빌레못 동굴 유적은 제주도에 있는 유일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로서 1973년 김월룡, 정영화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유적이다. 여기에서는 찍개, 금개 등의 도구와 갈색곰, 적록, 노루 등의 동물뼈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갈색곰뼈는 대륙성 동물의 뼈로서 당시 제주도가 한반도와 연류되어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한 때는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었지만 새로 개편된 교과서에는 삭제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유적지가 되고 있다.

곽지리 조개무지 유적은 곽지리 2091번지 일대의 2지구에서 청동기 말기에 해당되는 공렬토기가 출토되었으며, 또 2045-1번지 일대의 4지구에서는 8~9세기대의 통일신라시대 토기가 확인됐다. 이처럼 다양한 시기의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제주도의 고대문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적지이다. 또한 여기에서 출토된 곽지리식 토기는 제주도사 연구에서 탐라 전기(AD 0~500)와 탐라 후기(AD 500~1105)의 시대를 구분하는 기

준이 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지만 교사들의 경우 71.4% 학생들의 경우 9%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산 영실 기슭에 위치한 존자암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93%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93.4%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답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법화사지 유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88.6%, 교사들의 경우 25.9%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1년에 1번 정도 실시하는 사회과 선생님들의 답사코스이고 최근에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에 대한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행여행이나 답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서 제주교육의 상징인 제주향교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94.2%, 학생들의 경우 65%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표선면 성읍리에 위치한 정의향교 유적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경우 74.6%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교사들의 경우에도 55.8%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현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96.5%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 3.6%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극히 낮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표선면 성읍리가 조선시대에는 정의현의 현청이 있었던 곳으로 중요시되었지만 지금은 일주도로가 지나고 해안 포구가 있는 표선리로 도시의 중심이동이 옮겨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별방진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에 89.5%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95.2%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답하고 있다. 별방진 유적은 제주도에 남아 있는 방어 유적이다. 조선시대에 오면 제주도는 해안을 따

라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을 쌓았는데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는 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였던 추사 김정희선생의 적거 유적지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96.5%, 학생들의 88.6%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대단히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제주에 유배되었던 성현을 모신 오현단 유적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95.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89.8%가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추사 적거 유적지가 제주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비교적 복원이 잘되고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가 잘된 편이지만 오현단 유적은 제주시내에 있고 주변에 제주성, 삼성혈 등이 있어서 문화재 체험학습장이 될 수도 있지만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제의 통치기간에 건설된 알드르비행장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73.3%, 학생들의 67.5%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정고 정문 앞에 있는 고구마 저장고가 일제 통치기간에 건설된 탄약고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72.1%, 학생들의 경우에 48.8%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알드르 비행장이 규모가 크고 지금도 비행기 활주로가 견고하게 남아 있으며 주변이 송악산관광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정고 정문 앞에 있는 고구마 저장고의 경우는 탄약고의 성질상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가 적은 때문에 같은 시기에 건설된 것이지만 학생들의 인식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식 현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과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향토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내 사회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향토 문화재에 대한 답사가 1년에 1회 정도

실시가 되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도 향토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향토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같은 급의 문화재의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인지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시내에 있는 관덕정의 경우 교사들은 100%, 학생들의 경우 58.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으나, 같은 급의 국가지정 보물로 있는 불탑사 5층 석탑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경우 73.6%, 학생들의 경우 32.5%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학생들의 경우에 같은 장소에 여러 유적이 있는 경우 유적지의 중요성보다는 경치가 좋고 관광지로 홍보가 잘된 곳의 유적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 산방굴사의 경우 95.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는 하멜표류 유적의 경우에는 27.7%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극히 낮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학생들의 경우에 생활 유적에 대한 인식도가 비교적 낮다. 빌레못 동굴 유적의 경우 25.3%, 괴자리 조개무지의 경우 9%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극히 낮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생활 유적의 경우에 발굴조사 후 거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생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학생들의 경우에 교통이 편리한 곳의 유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내에 위치한 삼성혈의 경우 76.6%, 관덕정의 경우 58.4%가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지만 한라산 영실 기슭에 있는 존자암의 경우에 6.6%만이 '잘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에 답하고 있어서 극히 저조한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향토사 체험을 할 때에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